개정보육과정에 기초한 놀이교육지원 사례집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

발간등록번호
2021-4호

놀이로 함께 배움

영유아들의 놀이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교사의 바람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보육과정에 기초한 놀이교육지원 사례집

놀이로 함께 배움

영유아들의 놀이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교사의 바람

개정보육과정에 기초한 놀이교육지원 사례집 **놀이로 함께 배움**

영유아들의 놀이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교사의 바람

Contents

PART 1. 사업소개

1. 「놀이학습공동체」 사업 개요 7
2. 「놀이학습공동체」 사업 결과 10

PART 2. 운영사례

1. 사례집 활용 방법 19
2.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사례 20

PART 3. 참여 후기

1. 컨설턴트 93
2. 보육교직원 103

센터장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은 잘 놀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놀이를 위해서 어른들은 노력해야겠지요.

2021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의 놀이학습공동체 사업은 영유아들의 행복한 놀이를 제공하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경기도북부 지역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전문 컨설턴트를 양성하여 소모임, 찾아가는 보육과정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참여한 어린이집의 자발적인 변화를 위해 어린이집의 특성에 맞춰 융통성있게 개별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사례집에 모았습니다.

이 사례집은 2022 놀이학습공동체 사업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단단한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2021 놀이학습공동체 사업에 참여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컨설턴트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는 경기도북부지역의 아이들의 행복한 영유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장 **정혜원**

PART

1

사업소개

「놀이학습공동체」 사업 개요 7
「놀이학습공동체」 사업 결과 10

「놀이학습공동체」 사업 개요

필요성 및 목적

- 「제4차 표준보육과정」은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강조하고 있으며, 영유아가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기반하여 놀이를 통해 배움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의 변화를 요구함
- 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방향성을 이해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이 실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보육 지원사업이 필요함
- 시·도-시·군센터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경기도북부지역 보육교직원들의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보육과정 운영의 질을 높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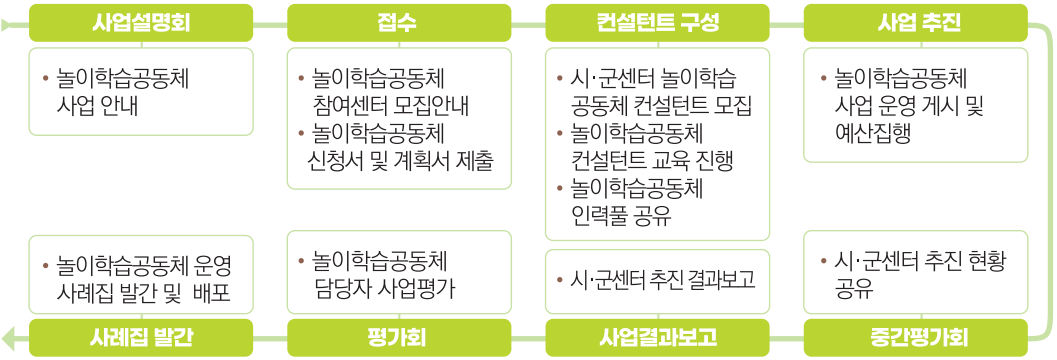
사업내용 교육, 소모임, 컨설팅

사업기간 2021. 4. ~ 11.

추진체계

추진과정

- 2021년 놀이학습공동체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추진세부내용

- 2021년 놀이학습공동체 추진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대상	일시	사업 내용	실적
놀이학습공동체 사업 설명회	경기북부지역 시·군센터	2021. 3. 3.(수) 10:00~12:00	▪ 놀이학습공동체 사업 목적 안내 ▪ 놀이학습공동체 사업 기간 및 추진계획 세부 내용 안내	1회 9명
접수	경기북부지역 시·군센터	2021. 3. 23.(화) ~ 2021. 3. 31.(수)	▪ 놀이학습공동체 사업 운영 안내 및 참여센터 모집 ▪ 놀이학습공동체 참여신청서 및 계획안 작성	6개 센터
컨설턴트 구성	경기북부지역 시·군센터	2021. 3. 23.(화)~ 2021. 3. 31.(수)	▪ 놀이학습공동체 시·군센터 컨설턴트 모집	1회 12명
	놀이학습공동체 컨설턴트	2021. 4. 16.(금) 14:00~16:00	▪ 놀이학습공동체 컨설턴트 교육 진행	
	경기북부지역 시·군센터	2021. 4. 19.(월)	▪ 놀이학습공동체 참여 컨설턴트 인력풀 공유	
놀이학습공동체 사업 운영	사업 참여 센터	2021. 5. ~ 11.	▪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영유아 중심 지역별 교육 진행	교육 15회 328명
			▪ 주제별 일지 작성, 상호작용, 놀이의 이해와 실행 등 현장의 필요도에 맞춘 소모임 진행	소모임 23회 82명
			▪ 컨설팅 신청 어린이집에 컨설턴트를 파견하여 교육과정, 상호작용, 서류작성 등에 대한 정보 안내	컨설팅 88회 270명
놀이학습공동체 중간평가회	경기북부지역 시·군센터 중간관리자	2021. 6. 1.(화) 10:00~14:00	▪ 시도 센터 – 놀이학습공동체 사례집 양식 안내 ▪ 시군 센터 – 놀이학습공동체 운영 추진 현황 공유	1회 7명
놀이학습공동체 사업결과보고	사업담당자	2021. 11. 12.(금) 12:00	▪ 시도 센터 – 놀이학습공동체 운영 결과 회신 안내 ▪ 시군 센터 – 놀이학습공동체 사업비 집행 및 운영 결과 시·도센터 회신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어린이집 놀이 사례 교육	경기북부지역 놀이학습공동체 참여어린이집 보육교직원	2021. 12. 7.(화) 15:00~18:00	▪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어린이집 연령별 놀이 사례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영상공모전 우수사례 3개 어린이집의 놀이진행과정 소개)	1회 66명

구분	대상	일시	사업 내용	실적
놀이학습공동체 평가회	사업담당자	2021. 12. 16.(목) 11:00~12:00	▪ 놀이학습공동체 운영 추진현황 공유, 제언 ▪ 사례집 안내	1회 10명
놀이학습공동체 사례집 발간 및 배포	경기북부지역 시·군센터, 컨설턴트, 참여어린이집	2021. 11. ~ 12.	▪ 놀이학습공동체 운영 사례집 발간 및 배포	

월별 세부 진행과정

• 2021년 놀이학습공동체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4월
- 놀이학습공동체 프로그램 홍보
- 참여 시·군센터 모집
- 놀이학습공동체 컨설턴트 교육

5월
- **시·도센터** 놀이학습공동체 운영 매뉴얼 안내
- **시·군센터** 놀이학습공동체 운영 계획 작성 안내

6월 ~ 8월
- 놀이학습공동체
- 교육, 소모임, 컨설팅 운영

8월
- 중간 평가회

9~11월
- **시·도센터** 놀이학습공동체 교육, 소모임, 컨설팅 운영
- **시·군센터** 놀이학습공동체 사례집 발간 서류 안내

11월~12월
- 놀이학습공동체 평가회, 시·군센터 놀이학습공동체 사례집 발간 서류 회신
-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어린이집 놀이사례 교육
- 놀이학습공동체 사례집 발간 및 배포

놀이학습공동체 위촉 컨설턴트

번호	성명	소속	직위
1	**권수진**	서영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2	**김승옥**	연성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3	**김영화**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4	**민혜자**	경기보육교사교육원	교수
5	**박미경**	군포시립송정마을어린이집	원장
6	**손윤희**	시립별마루어린이집	원장
7	**이연미**	경기북부보육교사교육원	교수
8	**장은미**	영유아미래연구소	소장
9	**전혜경**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0	**조상원**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1	**조연경**	양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12	**조연실**	김포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

「놀이학습공동체」 사업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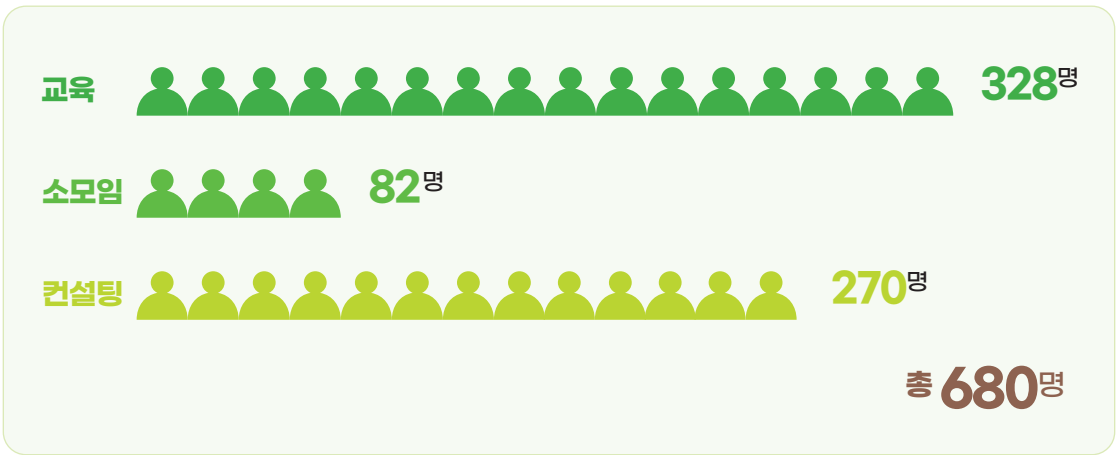
2021년 놀이학습공동체에 대한 **7**개 **센터**, **163**개 **어린이집**의 사업결과는 다음과 같다.

센터 **7**개

어린이집 **163**개

▪ 사업 횟수

▪ 참여 인원



「교육」 세부결과

- 영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2021 놀이학습공동체'를 시·군센터와 함께 진행하였다.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별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센터명	대상	운영횟수	참여인원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1 회	28 명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2 회	16 명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3 회	102 명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3 회	99 명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1 회	10 명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1 회	22 명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4 회	51 명
총계		15 회	328명

(1) 실적

- 참여유형

	횟수	참여인원
원장	3 회	50 명
보육교사	12 회	278 명
총계	15 회	328 명

- 교육주제

	교육 내용
놀이	놀이의 이해, 놀이의 가치,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의 개념정리, 놀이 관찰, 놀이기록의 의미 정리, 놀이환경, 우리 반에서 일어나는 놀이 점검해보기
보육과정	보육과정 이해하고 실천하기, 놀이 중심 보육과정,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의의
교사의 역할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 놀이학습공동체 교사의 역할,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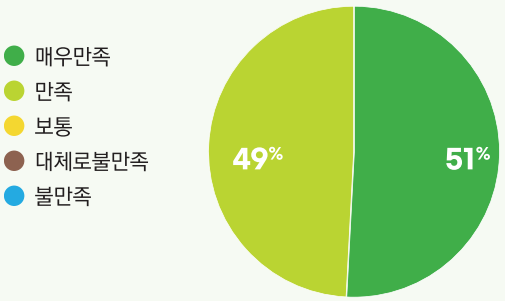
(2) 만족도

- **놀이학습공동체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은 경기북부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 15회가 진행되었으며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 놀이학습공동체 교육 만족도 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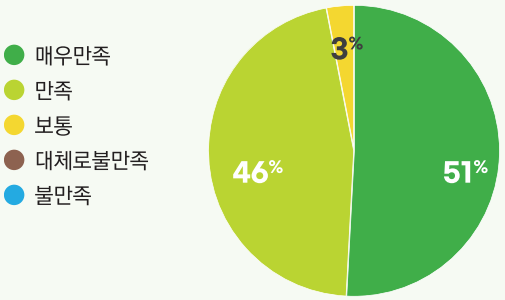
[그래프 1] 교육 내용 만족도

놀이학습공동체 교육 강의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48.6%의 매우만족과 51.4%의 만족으로 총 100%의 만족도 결과가 도출되었고, 내용은 [그래프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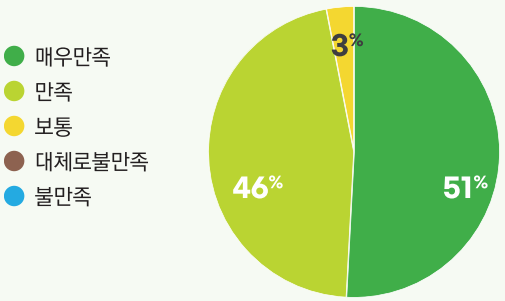
[그래프 2] 교육 횟수 만족도

놀이학습공동체 교육 횟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46%의 매우만족과 51.4%의 만족으로 총 97.4%의 만족도 결과가 도출되었고, 내용은 [그래프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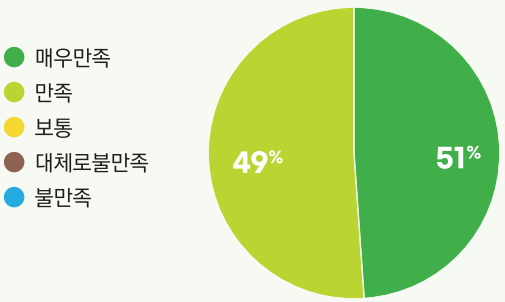
[그래프 3] 교육 절차 만족도

놀이학습공동체 교육 절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46%의 매우만족과 51.4%의 만족으로 총 97.4%의 만족도 결과가 도출되었고, 내용은 [그래프 3]과 같다.



[그래프 4] 교육 운영 만족도

놀이학습공동체 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1.4%의 매우만족과 48.6%의 만족으로 총 100%의 만족도 결과가 도출되었고, 내용은 [그래프 4]와 같다.



「소모임」 세부결과

- 영유아 중심 ·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소모임을 주제별로 나누어 보육 일지작성, 상호작용, 놀이의 이해와 실행, 놀이 지원 방법 등을 현장의 필요도에 맞추어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소모임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적

센터명	대상	운영횟수	참여인원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15 회	29 명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3 회	12 명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0 회	0 명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1 회	11 명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1 회	10 명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3 회	20 명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0 회	0 명
총계		**23 회**	**82 명**

- 참여유형

	횟수	참여인원
원장	18 회	42 명
보육교사	5 회	40 명
총계	**23 회**	**82 명**

- 교육주제

	교육 내용
놀이	놀이의 재발견, 평가제에 따른 놀이의 실제, 놀이의 가치, 영유아 지원하기, 놀이 이해와 기록하기, 놀이 돌아보기
보육과정	제4차 표준보육과정 '영유아 중심 · 놀이 중심', 놀면서 자란다 보육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현장 적용하기, 놀이 중심 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이론	표준보육과정 고시와 피아제, 비고츠키, 듀이의 이론
상호작용	바람직한 상호작용, 훈육과 학대의 경계 알고 적용하기, 영유아 상호작용의 연령별 세부방법
운영	평가제에 따른 일지 작성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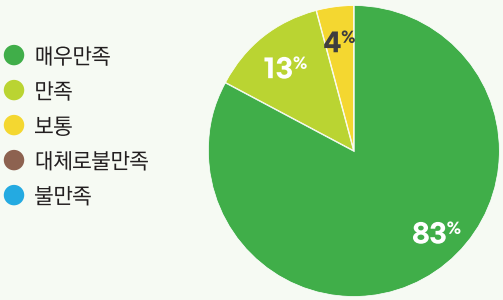
(2) 만족도

- **놀이학습공동체 보육교직원 대상 소모임은 경기북부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23회가 진행되었으며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 놀이학습공동체 소모임 진행 만족도 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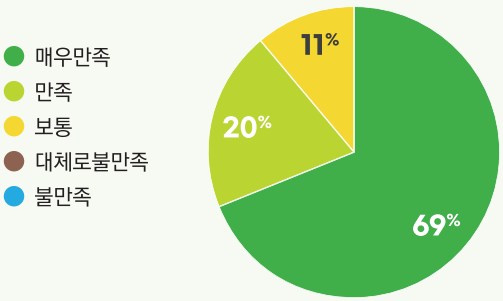
[그래프 5] 소모임 진행 만족도

놀이학습공동체프로그램 소모임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83%의 매우만족과 13 %의 만족으로 96%의 만족도 결과가 도출되었고, 내용은 [그래프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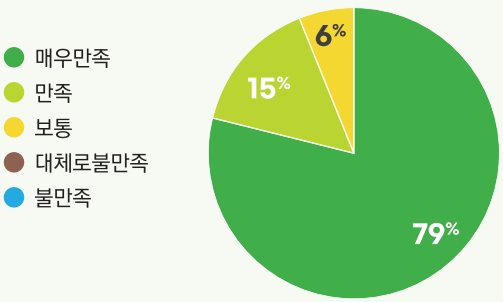
[그래프 6] 소모임 진행 횟수 만족도

놀이학습공동체프로그램 소모임 횟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69%의 매우만족과 20 %의 만족으로 89%의 만족도 결과가 도출되었고, 내용은 [그래프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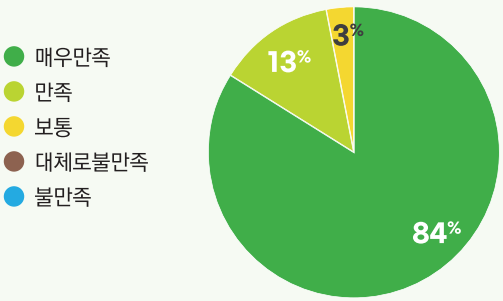
[그래프 7] 소모임 진행 절차 만족도

놀이학습공동체프로그램 소모임 절차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79%의 매우만족과 15 %의 만족으로 94%의 만족도 결과가 도출되었고, 내용은 [그래프7]과 같다.



[그래프 8] 소모임 운영 만족도

놀이학습공동체프로그램 소모임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84%의 매우만족과 13 %의 만족으로 97%의 만족도 결과가 도출되었고, 내용은 [그래프8]과 같다.



「컨설팅」 세부결과

• 놀이학습공동체는 보육교직원이 효과적으로 제4차 표준보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보육컨설팅을 제공하였다. 컨설턴트를 컨설팅 신청 어린이집에 파견하여 교육과정, 상호작용, 서류작성 등에 대한 정보를 통해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시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별 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적

센터명	대상	운영횟수	참여인원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21 회	21 명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9 회	44 명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8 회	129 명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7 회	14 명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5 회	10 명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6 회	6 명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교직원	32 회	46 명
총계		88 회	270 명

• 참석유형

	횟수	참여인원
원장	4 회	42 명
보육교사	84 회	228 명
총계	88 회	270 명

• 교육주제

	교육 내용
놀이	어린이집 놀이 환경 컨설팅, 영유아들의 놀이에 대해 생각해보기, 놀이의 시작과 놀이의 흐름 및 교육적 지원에서 교사 관찰의 중요성 알아보기, 놀이의 힘, 영유아의 놀이, 흥미에 따른 놀이의 시작과 흐름 알아보기
보육과정	영유아 중심 놀이 진행 및 교사의 역할, 표준보육과정 운영 컨설팅,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이해하기,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특징과 내용구성 이해하기, 놀면서 자란다 보육과정에 대해 알기,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중심을 둔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 보육과정
상호작용	긍정적인 상호작용
운영	관찰일지 및 보육 일지 작성법, 일상생활, 놀이, 활동을 통한 활기차고 행복한 일과 경험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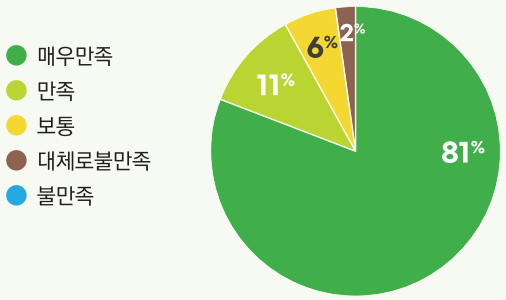
(2) 만족도

- **놀이학습공동체 보육교직원 대상 컨설팅은 경기북부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총 88회가 진행되었으며 만족도는 다음과 같다.**

| 놀이학습공동체 컨설팅 진행 만족도 조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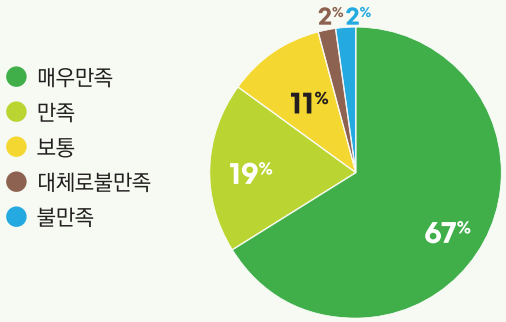
[그래프 9] 컨설팅 진행 만족도

놀이학습공동체프로그램 컨설팅 진행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80.9%의 매우만족과 10.7%의 만족으로 91.6%의 만족도 결과가 도출되었고, 내용은 [그래프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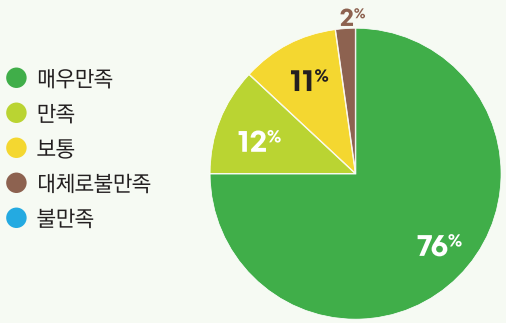
[그래프 10] 컨설팅 진행 횟수 만족도

놀이학습공동체프로그램 컨설팅 진행 횟수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66.7%의 매우만족과 19%의 만족으로 총 85.7의 만족도 결과가 도출되었고, 내용은 [그래프10]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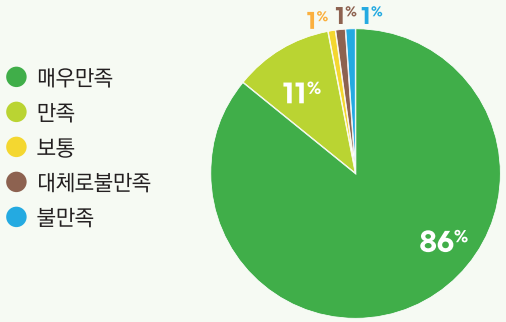
[그래프 11] 컨설팅 진행 절차 만족도

놀이학습공동체프로그램 컨설팅 진행 절차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76.2%의 매우만족과 11.9%의 만족으로 총 88.1의 만족도 결과가 도출되었고, 내용은 [그래프11]과 같다.



[그래프 12] 컨설팅 운영 만족도

놀이학습공동체프로그램 컨설팅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85.7%의 매우만족과 10.7%의 만족으로 총 96.4의 만족도 결과가 도출되었고, 내용은 [그래프12]와 같다.



PART 2

운영사례

사례집 활용 방법 19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사례 20

1. 과수원 구성하기 | 상패어린이집 | 20
2. 세계 지도 퍼즐 | 연천어린이집 | 24
3. 시원한 여름 | 한석봉어린이집 | 30
4. 시끌벅적 시장에 왔어요 | 남이섬어린이집 | 34
5. 놀이를 해봐요 | 초록별어린이집 | 40
6. 동물기차 | 건영어린이집 | 43
7. 아라반 색깔돈은행 |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 46
8. 우리가 만드는 세상 | 예닮어린이집 | 49
9. 따라 그리기 |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 51
10. 아기돼지 삼형제 극놀이 | 시립인창어린이집 | 53
11. 목욕탕놀이 | 산마루어린이집 | 55
12. 목욕탕 놀이 | 안델센어린이집 | 57
13. 컵쌓기 | 시립어반포레어린이집 | 58
14. 바닷 속 친구들 | 대방시그니처어린이집 | 60
15. 알록달록 가을이예요 | 덕정따복어린이집 | 62
16. 나, 너, 우리의 바다이야기 | 리첼아이어린이집 | 65
17. 나뭇잎은 요술쟁이인가봐~ | 옥정어린이집 | 68
18. 뽀글뽀글 초록목욕탕 신장개업 | 행복하나어린이집 | 70
19. 자동차를 굴려요 | 공립가람어린이집 | 74
20. 팽이놀이 | 공립가람어린이집 | 75
21. 색으로 놀이하자! | 공립대방빛가람어린이집 | 77
22. 가을 풍경 | 공립대방빛가람어린이집 | 79
23. 가을 숲으로 놀러와요 | 공립은행어린이집 | 80
24. 가을 자연물로 놀이하자 | 공립은행어린이집 | 83
25. 종이접기놀이 | 승진어린이집 | 85
26. 카페놀이를 해요 | 아이파크어린이집 | 87
27. 커피를 만들어요 | 예그린어린이집 | 89

「놀이학습공동체」 운영사례

사례집 활용 방법

| 어린이집 기관에서의 활용 |

- 교사의 교육계획에 대한 자율성 확대
- 교사의 전문성 지원(놀이와 배움의 연결과정에 대한 이해)
-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과 실행력 함양
- 어린이집에서 신입/영·유아반 담임교사 교육 자료로 활용
- 개정 누리과정을 적용하는 주체인 교사의 역량을 키우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
- 놀이운영사례집을 통하여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데 활용
- 놀이·아동 중심 교육과정을 실현하여 질 높은 보육환경 기회제공
- 개정 누리과정에 대하여 고민을 가지고 있는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긍정적 인식 함양

육아종합지원센터별 사례

기관명	어린이집명	제목	연령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상패어린이집	1. 과수원 구성하기	만 5세
	연천어린이집	2. 세계 지도 퍼즐	만 5세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한석봉어린이집	3. 시원한 여름	만 3세
	남이섬어린이집	4. 시끌벅적 시장에 왔어요	만 3, 4, 5세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초록벌어린이집	5. 놀이를 해봐요	만 1세
	건영어린이집	6. 동물기차	만 2세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7. 아라반 색깔돈은행	만 4세
	예닮어린이집	8. 우리가 만드는 세상	만 3, 4세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9. 따라 그리기	만 4세
	시립인창어린이집	10. 아기돼지 삼형제 극놀이	만 5세
	산마루어린이집	11. 목욕탕놀이	만 3세
	안델센어린이집	12. 목욕탕 놀이	만 4, 5세
	시립어반포레어린이집	13. 컵쌓기	만 1세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방시그니처어린이집	14. 바닷 속 친구들	만 1세
	덕정따복어린이집	15. 알록달록 가을이예요	만 2세
	리첼아이어린이집	16. 나, 너, 우리의 바다이야기	만 2세
	옥정어린이집	17. 나뭇잎은 요술쟁이인가봐~	만 2세
	행복하나어린이집	18. 뽀글뽀글 초록목욕탕 신장개업	만 2세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공립가람어린이집	19. 자동차를 굴려요	만 3세
		20. 팽이놀이	만 4, 5세
	공립대방빛가람어린이집	21. 색으로 놀이하자!	만 3세
		22. 가을 풍경	만 4세
	공립은행어린이집	23. 가을 숲으로 놀러와요	만 3세
		24. 가을 자연물로 놀이하자	만 4세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승진어린이집	25. 종이접기놀이	만 4세
	아이파크어린이집	26. 카페놀이를 해요	만 2세
	예그린어린이집	27. 커피를 만들어요	만 3, 4, 5세

1. 과수원 구성하기

연령 만5세

놀이반 소개

- 반의 성비가 남자 11명 여자 9명으로 좀 더 활발한 놀이가 이루어지며 신체적인 놀이를 선호합니다.
- 친구들은 역할, 쌓기영역을 선호하며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놀이를 통해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 놀이 중 갈등상황 발생 시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놀이의 시작

- 교사가 계획 및 제공한 놀이는 쌓기 영역에서 '가을의 논과 밭' 구성하기 놀이였으나 주말 동안 포도밭에 다녀온 유아가 있어 포도밭에 다녀 온 일을 회상하며 친구들과 포도밭 만들기 놀이로 변경되어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 포도밭을 구성하며 필요한 포도는 역할 영역에서 음식 모형으로 처음 놀이가 전개되었으나 직접 포도를 그려 놀이에 참여하는 유아가 생기자 미술 영역으로 놀이가 확장되어 포도를 직접 그려 포도밭을 구성해보았습니다.
- 포도 뿐 아니라 가을에 볼 수 있는 다양한 가을 열매들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고 사과, 고구마, 감, 고추 등 다양한 가을 열매들이 언급되었습니다.
- 미술 영역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 가을 열매를 만들던 유아들이 포도 뿐 아니라 위에 이야기 나누기에서 언급한 사과, 감, 고구마 등을 그림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놀이의 과정

1. 다양한 밭 구성에 참여하기

- 가을의 논과 밭 구성하기 놀이를 하던 중 유아들이 포도 밭뿐 아니라 고구마 밭, 고추 밭, 감나무, 사과 나무 등 다양한 가을 열매를 표현하여 각자의 밭을 구성하고 싶어하였습니다.
- 쌓기 영역, 역할 영역에 나무와 빈 우드락을 제공해주어 유아들이 어떤 공간을 어떤 가을 열매의 공간으로 표현할 것인지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해주었습니다.

가을의 볼 수 있는 논과 밭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친구들과 놀이에 참여해보았어요.

- 유아가 각자의 영역을 활용하여 포도 밭, 고구마 밭, 고추 밭 등을 구성하였고 크레파스를 활용하여 밭을 그림으로 표현해보았습니다.
- 유아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어 밭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격려해주자 고구마 밭과 포도 밭의 사진을 궁금해하는 유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밭의 사진을 함께 컴퓨터를 활용하여 검색하여 살펴보며 자유롭게 밭을 표현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밭에서 볼 수 있어요

- 포도 밭과 고구마 밭 등을 구성하던 중 사과 나무도 구성하고 싶다는 유아들이 있어 미술 영역에서 사과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쌓기 영역의 블록들을 활용하여 역할 영역에서 사과 밭을 구성하였습니다.
- 유아들이 만든 나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유아가 “나무는 어떻게 하면 커져요?”라는 질문을 하였고 친구들과 책과 미디어를 통해 햇빛, 물, 거름, 환경 등을 통해 나무가 성장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열매 맺는 나무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친구들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 책과 미디어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놀이의 과정

3. 친구들과 시장놀이를 해요.

가게 주인과 손님으로 역할을 나누어 물건을 사고파는 경험을 가지며 필요한 자원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 사과 과수원에서 시장 놀이를 하며 물건을 주고 사과 값을 지불하며 놀이에 참여하였습니다.
- 가을열매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나 가을열매를 어떻게 표현해볼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몇몇의 유아들이 미술 영역에서 직접 그림으로 표현한 가을열매들을 테이프로 붙여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교사가 추가로 찍찍이를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 각자의 밭을 구성하여 놀이하던 중 고구마 밭의 유아가 교사에게 "선생님, 고구마 사셔야죠. 선생님이 손님해요." 라며 시장놀이를 제안하여 역할 영역과 연계하여 과수원 시장놀이가 시작됨을 다른 유아들에게 알려주며 다양한 물건을 사고 파는 경험을 가져보았습니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다양한 과수원, 밭 사진 제공 / 빈 우드락, 크레파스, 한지, 색종이, 보슬이, 까슬이, 가위, 색연필 제공

- **인적 자원**

– 고구마 밭 구성하는 유아가 고구마 밭과 고추 밭의 모습이 궁금하다고 하여 컴퓨터 검색을 활용하여 고구마 밭과 고추 밭을 탐색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고구마 밭을 만든 후 친구들이 고구마 밭에 오지 않는다며 속상해하는 유아을 위해 고구마 밭을 친구들에게 홍보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격려함

– 시장놀이 시 화폐의 단위를 모르는 유아들을 위해 살펴보며 도와 줌

– 시장 놀이에 참여하지 못한 유아가 있어 유아의 놀이 참여 의사를 묻고 참여해 볼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나누어 줌

– 역할 영역에 사과 밭을 구성하고 싶다는 유아들이 교사에게 사과 나무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 도움을 요청하여 색상지를 활용하여 사과나무를 표현해 줌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유아들이 놀이를 하는 것이 대해 공간의 제약이 있었음 ▪ 자신의 경험을 놀이에 접목시키는 것에 적극적이지 않았음	▪ 공간의 제약을 두지 않고 다양한 영역들과 확장하고 연계하여 놀이가 진행됨 ▪ 자신의 경험을 놀이에 투영시켜 직접 겪은 일들을 놀이에 녹여내어 놀이 할 수 있었음
교사의 변화	▪ 유아들의 놀이에 공간적인 제약을 두었음 ▪ 안전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여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음	▪ 교구장의 위치를 바꿔준다던지 다른 영역과 연계하여 놀이 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간을 재배치 하게 됨 ▪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도 주의하고 잘 살펴 지도를 하고 있으나 다칠까봐 놀이를 중단하기보다는 놀이 중간에 안전하게 놀이하는 방법과 규칙에 대해 유아들이 직접 약속을 정해 지켜 놀이 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을 나누어주고 있음
영유아의 변화	▪ 교사가 제공한 놀이에 호기심을 가지며 교사가 제공한 만큼만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음	▪ 주말 동안이나 전날 저녁에 가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과 교사에게 많이 전하며 자신의 경험을 놀이에 투영시켜 놀이함 ▪ 교사가 제공한 놀이 뿐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더 많은 중점을 두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였던, 더 경험하고 싶은 내용을 놀이로 표현함

2. 세계 지도 퍼즐

연령 만5세

놀이반 소개

- 다양한 놀이영역마다 집단을 만들어 놀기 시작한 무지개반입니다. 하나의 집단에서 집단 대 집단의 경쟁구도의 놀이를 선호하며, 놀이 속 승부의 결과에 즐거워한다.

놀이의 시작

- '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의 놀이를 위해 환경을 구성하자 세계 여러 나라와 리포터라는 주제에 유아들이 관심을 보였다. 놀이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며 유아들이 과학영역에 비치된 지구본과 지도를 보며 평소 알고 있던 대한민국/일본/중국 등에 대해 특징을 설명하고 사전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었으며, 그 외의 평소 모르던 나라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자연스레 다양한 나라를 탐색하며 폭넓게 놀이가 진행되었다.

놀이의 과정

1. '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 환경 탐색하고 놀이 진행하기

친구들과
기상캐스터,
아나운서,
리포터 등 다양한
역할을 선택하여
놀이를
가져보았어요.

- ‘세계의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 활동 구성을 위하여 리포터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 자료를 제공하고 역할영역 한 면을 뉴스데스크 배경으로 구성을 해두었더니 유아들이 관심을 가졌다. “여긴 뭐하는 곳이지?”, “뉴스잖아, 뉴스에서 이런 배경 본 적 있어.”, “같이 놀래?” 등의 대화를 나누며 놀이를 시작했다.

- 카메라 장난감을 쥔 □□가 뉴스 감독이 되고, 마이크를 쥔 △△가 리포터가 되었다. 리포터 역할을 하던 △△는 이목이 집중되자 부끄러운지 교사에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먼저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여 교사가 리포터가 되어 마이크를 쥐고 카메라 앞에 서서 오늘의 날씨와 오늘 오후 간식에 대해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보이자 다른 유아들도 리포터 역할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는 다시 마이크를 쥐고 요즘 뉴스에게 자주 보이는 ‘코로나19’ 현황에 대한 설명을 리포터처럼 설명하기 시작했다.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입니다. 코로나19가 심해져 놀이터에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마스크를 벗지 마세요.”

2. 지구본 속 알고 있는 나라 찾아 소식 전하기

- 뉴스에서 자주 보고 듣던 ‘코로나19’에 대해 뉴스를 전하던 유아들이 주제를 바꾸어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에 대해 놀이를 진행 하기 시작하였다. 과학영역에 비치해 두었던 지구본을 가져와 돌리며 평소 알고 있던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 만화나 미국 과자, 중국의 음식 등에 대해 리포터가 되어 설명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사전경험을 통해 “나 미국 알아, 미국 과자 먹어봤어.”, “우리 엄마 아빠는 신혼여행으로 하와이 다녀왔대.” 라고 유아들끼리 대화를 나누었다.

지구본을 통해 다양한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 세계 여러 나라 소식을 전하는 리포터 놀이를 진행하던 유아들 중 ◇◇가 “내가 뉴스 진행한 모습 보고싶다.”, “선생님 핸드폰으로 동영상 연결해주시면 안돼요?” 라고 말하여 카메라 삼각대에 공기계 핸드폰을 고정하여 동영상을 연결해주니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동영상을 찍고, 자신들이 찍힌 동영상을 재생하며 유아들이 자신들의 모습에 즐거워하였다.

뉴스를 진행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다 친구들과 영상을 촬영해 소식을 전해보았어요.

놀이의 과정

3.다양한 나라의 카드를 보며 탐색하기

- 한참을 리포터 놀이를 하던 유아들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나라 외에 다양한 나라의 이름에 대한 궁금증을 갖기 시작하였고 그런 유아들을 위해 다양한 나라의 국기와 국가 이름이 적힌 카드를 제공하였다. 유아들은 카드를 살펴보며 카드 뒷면에 적힌 국가의 이름을 읊조리기 시작했다. 생소한 국기를 가진 국가들에 질문이 잦아진 모습을 보인다.

친구와 게임을 통해 다양한 나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 국기 카드를 보던 중 평소 알고 있던 나라의 국기를 보자 한 유아가 반갑게 카드를 들고 교실 벽면에 붙은 세계지도로 향하여 손가락으로 아시아를 짚어본다. “대한민국 찾았다! 지도에서도 대한민국 찾아보자!” / “여기 있는 카드랑 여기(손가락으로 짚은 부분)랑 같은 나라에요?” / “이 카드에 있는 나라는 여기서 어디에 있지? 같이 찾아보자!” 지구본도 세차게 돌리며 카드 속 적힌 나라의 이름을 찾으며 한참 동안 놀이를 진행한다.

4.대륙명 알아보기

반에서 친구들과 지도 만들기가 시작되었어요~!

- 지구본에 적힌 대륙명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유아들이 많았다. “선생님 아메리카는 뭐고, 유럽은 뭐에요?”, “대서양도 나라 이름이에요?”, 대륙명에 대해 궁금해하는 유아들을 위해 대륙명만 적힌 지도를 커다랗게 인쇄해 제공하였고 대륙명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듣고 나라마다 어느 대륙에 속해 있는지 유아들이 지구본과 세계지도를 보며 찾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아시아구나?”, “일본도 아시아야.”
- “나 대한민국 안보고 쓸 수 있어.” 라고 말을 한 유아가 교실 언어영역에 비치된 포스트잇을 가져와 나라의 이름을 적어 대륙마다 붙여놓는 모습을 보인다. 그 모습을 보자 다른 유아들도 포스트잇에 나라를 적어 붙이기 시작하였다. 포스트잇이 모자라자 더 줄 것을 요구하여 더 제공하였다. 완성된 대륙 속 지도를 보며 “우리가 지도를 완성했어.”, “콜롬비아는 내가 썼어.”, “와~ 우리가 완성한 지도다. 재밌어.”

5. 대륙 속 나라 찾아 적기 게임 진행 및 방송 중계

포스트잇 지도 만들기 놀이가 확장되어 스피드 게임이 진행되었어요.

-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기 시작한 놀이가 어느새 스피드 게임이 되었고, 유아들이 서로 팀을 나누어 누가 더 빨리 카드 속 나라를 지구본에서 찾아 대륙만 적힌 지도에 맞추어 나라 이름을 적는지에 대해 경쟁이 시작되었다. 유아들끼리 놀이가 정리가 되지 않자 교사에게 “선생님이 심판해주세요! 저희끼리 하려니까 어려워요!” 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고 교사는 심판 역할을 하였다.

놀이의 과정

- 유아들은 카드를 뒤집어 보여 주는 역할을 한 명 정하고 1:1 팀으로 나뉘어서 교사의 '시작' 소리에 맞춰 나라 찾기 놀이가 흥미롭게 진행되었다. "빨리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대륙 찾아서 써야돼!", "카드 뒤집기는 차례대로 하기로 하자.", "틀려도 괜찮아. 고치면 되니까." 글씨를 익힌 유아들도 있지만 아직 미숙한 유아들을 위해 유아들이 서로 독려 하는 대화를 많이 나눴다.

친구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규칙을 만들어요.

- 게임이 무르익자 한 유아가 역할영역에 비치된 공기계 카메라를 가져와 게임 장면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연천어린이집 나라 찾기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오늘의 승자는 어느 팀이 될까요?", "소감 한 번 말해주세요!", 얼마 전 도쿄 올림픽 봤던거랑 비슷하다!", 게임이 종료되자 유아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중계했던 영상을 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친구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촬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핸드폰을 사용해 촬영해보았어요.

6. 게임 후 완성된 세계지도퍼즐 전시하기

- 게임이 끝난 뒤 승부를 정하였고, 유아들은 승패에 수긍하는 모습들을 보였다. 완성된 작품은 유아들이 함께 어디에 붙일지 상의를 하였다. "너무 높으면 잘 안보여.", "역할영역엔 동영상 찍어야 되니까 안돼.", "너무 낮게 붙이면 다른 반 동생들이 뗄 수 있잖아." 상의가 끝나자 교사에게 붙일 곳을 알려주어 교사의 도움을 받아 교실 한 켠에 붙일 수 있었다. 붙이는 과정 또한 교사 혼자 하지 않고 유아들과 협동하여 진행하였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지구본, 나라 카드, 대륙 지도, 포스트잇

• **인적 자원**

– 대륙명에 대해 알려주기, 스피드 게임 중 감독이 되어주기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놀이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놀이하였다.	▪ 놀이 영역에 억압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놀이를 펼칠 수 있게 되었다.
교사의 변화	▪ 결정권자 역할을 주로 하였다.	▪ 유아들의 말에 더욱 귀를 기울여 줄 수 있게 되었으며, 유아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어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상의를 하고 함께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유아들의 의견 존중하는 능력이 성장했다.
영유아의 변화	▪ 놀이를 할 때 의견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마찰이 잦은 모습을 보였다.	▪ 서로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할 수 있게 됨을 느끼며 자신들의 의견을 숨기지 않고 토론할 수 있게 되어 유아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존중하는 법을 익히고 서로의 이해관계 형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한석봉어린이집

3. 시원한 여름

연령
만3세

놀이반 소개

- 반의 특징(놀이선호도, 발달 등) “놀이 행복 100% 꿈별반” 만 3세 유아들이 알콩달콩 신나는 놀이와 도란 도란 이야기꽃을 피우며 하루하루 즐겁게 선생님과 다양한 놀이 중심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흥미놀이 위주로 활동 진행되며 선생님의 적절한 관찰과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놀이와 참여를 하도록 교사가 지도하며 만 3세 유아들의 행동특성이나 개인적인 성향을 교사가 관찰과 놀이로 파악하고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며 보다 더 즐거운 어린이집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도 교사도 함께 성장하는 꿈별반입니다.

놀이의 시작

- 놀이가 시작하게 된 배경(영유아들이 놀이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아, 더워요” 계절에 대해 알아보고 여름~~시원한 여름은 어떤 계절일까? 이야기나누며 놀이시작이 되었습니다.
- 유아들은 “여름은 더워요”, “시원한 수박”, “물놀이 가요~”, “물! 바다! 얼음” 등등 다양한 경험을 떠올리며 놀이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아주 많았습니다. 교사는 유아들이 이야기하는 여름에 대해 놀이를 진행 할 수 있도록 시원한 음식, 물, 물놀이, 바다, 얼음..등등 다양한 준비를 하였고 놀이가 진행되었습니다.

놀이의 과정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 지원

- **[신체표현] 바다생물 되어보기**

  바다생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신체활동을 통해 유아가 바다생물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바다생물에 대한 탐구_낚시 놀이**

  유아 유아는 입체적인 바다생물을 만들어 넓은 공간의 낚시터를 구성해 함께 놀이하였습니다. 낚시 놀이에서 그치지 않고, 낚시한 바다생물을 요리하고, 그 요리로 상을 차려, 친구를 초대하는 등 다양한 놀이로 이어졌습니다.

- **바다생물에서 음식점놀이로의 확장**

  유아 교실 바닷가에는 낚시한 바다생물을 파는 물고기 시장이 만들어지고, 시장에서 사 온 물고기로 음식을 만드는 음식점이 생겨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아는 각자의 역할에 맞게 놀이로 이어나갔고, 물건을 사고파는 경제개념에 대해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놀이중 한 유아가 "아~ 더워요"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여름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한쪽 편에 아이스크림 가게를 만들어 시장놀이로 확장되게 되었습니다.

- **바다생물에 대한 탐구결과 활용하기_다른 반과 놀이 공유하기**

  유아 아이스크림 가게놀이가 활발해지며 공유 공간으로 놀이 장소를 이동하게 되었고, 다른 반 유아들도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유아들은 다른 반과 함께 놀기 위해 공유 공간을 아이스크림 가게를 꾸미고 역할을 정하였습니다.

  교사 교사는 유아들의 사전경험을 이야기 나누고 다양한 아이스크림 가게놀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재료(막대, 봉봉이, 다양한 재질의 종이 등)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 **유아의 배움**

시원한 여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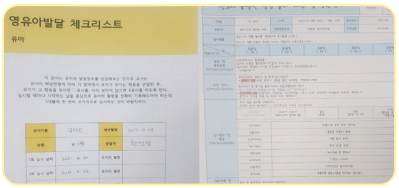
투명한 종이 탐색하기	• 종이를 활용한 다양한 놀이방법을 탐색하였음 • 주도적, 창의적으로 놀이하며 다양한 재질의 종이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음
바다생물 되어보기	• 바다생물의 움직임을 관찰을 통해 특성을 알고, • 신체활동을 통해 유아가 바다 생물의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었음
낚시놀이	• 다양한 바다생물에 관심을 가짐 • 대소근육의 협응력과 성취감, 즐거움을 느낌
음식점 놀이	• 물건을 사고 파는 경제 개념에 대해 배워나가기 시작함 • 평소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친구와도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으며 또래 관계를 넓혀 나감

교사의 지원

- “무엇으로 놀까?”놀잇감을 한 가지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섞어 쓰고, 다르게 써 보도록 지원하였으며, 비구조적인 개방형 놀잇감과 자연물, 일상용품(컵, 다양한 종류의 끈, 거울, 천 등) 놀잇감을 많이 활용하였습니다.
- 비구조적인 놀잇감이나 자연물 위주의 교구를 제시하여 놀잇감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더욱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 “어디서 놀까?” 유아의 경험이 분절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어린이집 공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빈 공간, 빈 교구장, 놀이 공간이 아니었던 공간 활용하기, 놀이의 흔적 남기기 등 유아와 함께 채워가고 변화하는 환경으로 공간을 만들어 갔습니다. “언제까지 놀까?”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일과 운영의 변화: 기존에는 유아들의 놀이 시간인 실내자유놀이를 하루 2시간 정도 계획하여 운영하는 지침을 준수하였었는데, 놀이 중심 보육과정으로의 변화를 추구하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일과를 변경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교사로서의 욕심이 앞서 많은 준비와 계획을 하였지만 주제 중심에서 벗어나 유아의 놀이를 따라가며 유아의 관심에서 시작하는 놀이를 중심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었습니다.
- 유아와 교사가 함께 하는 놀이, 활동, 배움의 측면에서 접근하였더니 한결 놀이도 아이들도 신나고 안정적으로 참여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놀이 중 유아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주제인지 유아들의 놀이를 탐색하고 적절하게 놀이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반응 그리고 격려를 통해 공감해 주며 직접 스스로 참여율이 더 높아지도록 하였으며 유아들도 서로가 하는 놀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 교사는 유아들이 놀이하며 필요한 놀이감이나 재료를 제공해 주었고 유아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적절한 관찰과 상호작용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놀이하며 지속적으로 놀이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교사가 놀이를 주도하며 대부분 모여서 활동하고 놀이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신입교사로 아이들의 놀이보다 안전에 많은 부담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 시원한 여름 바다를 배경으로 고기잡이 놀이도 하며 유아들이 물고기도 색칠해서 꾸며 낚시놀이에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아이들이 앉아서 놀이하고.. 안전하게 안전하게.. 초임교사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아이들에게 많은 부분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 교사의 주도하에 찍기놀이를 진행하며 유아들이 체험하며 활동하는 놀이를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 시원한 여름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가족역할극을 하며 음식상도 차리고 여름음식을 먹어 보며 다양한 음식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었습니다. ▪ 나는야 아이스크림가게 사장님~~ 친구들이 모자를 꾸며서 머리에 쓰고 아이스크림 가게 놀이에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교사의 변화	 ▪ 신입교사로서 어린이집에 아이들과 함께 적응기간을 가져야 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아이들의 관찰이나 적절한 대화 격려가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힘겹고 버거울 때가 많았습니다. 원장님과 컨설턴트님의 지도하에 좀 더 아이들의 놀이와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며 유아들에게 접근 할 수 있었습니다.	 ▪ 보육과정 전반에 걸쳐 교사로서 변화과정을 지나 아이들이 어떤 놀이와 활동에 흥미와 관심이 많은지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관찰 및 상호작용 원장님과 교직원간의 보육과정 계획 및 평가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교사의 관심과 관찰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며 그에 따라 격려와 자료 제공을 통해 여러 가지 활동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의 변화	 ▪ 교사의 주도하에 진행되는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유아들은 정적이면서도 다양한 활동을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였고 흥미와 놀이 중심 활동이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 놀이 중심의 활동을 진행하면서 흥미 위주로 놀이 참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교사의 관찰을 통해 필요한 자료나 물품을 제공해주어 더욱 더 활발한 놀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남이섬어린이집

4. 시끌벅적 시장에 왔어요

연령
만3~5세

놀이반 소개

-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며,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 역할놀이를 즐겨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
- 혼자놀이보다는 다 같이 놀이하는 것을 즐긴다.
- 연령이 혼합이다보니 각 연령별 친구들끼리 놀이하는 경향이 있다.

놀이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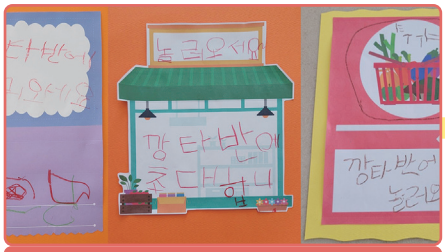
- 어린이집 행사인 프리마켓이 열리면서 유아들이 “프리마켓이 뭐지?”, “프리마켓 할 때 뭐가 필요하지?“ 라는 궁금증에서 놀이가 시작되었다.
- 가정에서 프리마켓에 사용할 물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경험을 나눔으로써 유아가 자연스럽게 프리마켓에 관심이 높아졌다

놀이의 과정

“시끌벅적 시장에 왔어요”

1. ‘프리마켓이 열렸어요’

2. 장바구니 만들기



3. 초대장 만들기 '동생반을 초대해요'

4. 간판 만들기

5. 오일장이 열렸어요

6. 시장으로 오세요

프리마켓 물건 소개하기

- **어린이집 행사 '프리마켓' 에 사용할 물건을 가정에서 가져와 유아들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아: 내가 가져온 물건은 '인형'이야.
유아: 나는 로봇 가져왔어.
유아: 이 책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야.
서로 자신이 가져온 물건을 소개하며 프리마켓에 기대감을 표현하였다.
유아: 프리마켓 정말 재미있겠다.
유아: 어떤 물건들이 있을까?
유아: 나는 카드가 없어서 물건 못 사겠다.

유아의 관심	교사의 지원	교사의 지원
프리마켓에 물건을 팔고 싶어요	관련 도서와 다양한 미술재료를 지원함	유아들의 놀이가 연계되고 확장되려면 무엇을 더 지원해 주어야 할까?

- **책을 읽으면서 유아들은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놀이의 과정

시장놀이를 해요

- **역할·쌓기 영역의 다양한 놀잇감을 이용해 시장을 만들고 시장놀이를 한다.**

유아: 시장에는 야채도 있고, 생선도 있고, 과자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어.
유아: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거 많아.
유아: 나는 과자 사고 싶은데 계산은 어떻게 하지?
교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친구들과 생각해 보자.
유아: 미술영역에 종이로 돈을 만들면 어떨까?
몇 명의 유아들이 모여 돈을 만들기 시작한다.

유아의 관심	교사의 지원	교사의 지원
시장에서 팔 물건들과 돈이 필요해요	유아의 놀이 주도성을 지지하고 친구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법을 격려함	놀이영역을 얼마나 넓혀주고 허용 범위에 대한 고민

- 3~5세 혼합연령반으로 돈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를 어려워 하기도 했지만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림자료와 책을 이용해 지원해 주었다.
- 계산하는 방법에 유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 주고 받으며 흥미로워하였다.

우리동네 시장에 가고 싶어요

- 유아: 시장은 언제 가지?
  교사: 가평에는 오일장이라는 오일마다 열리는 시장 있어.
  유아: 오일장은 언제 열려요?
  교사: 3번만 자면 시장이 열릴거야~
  유아: 너무 가고 싶어요. 얼른 3번 자고 시장에 가고 싶어요.
- 3~5세 혼합연령반으로 돈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를 어려워 하기도 했지만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림자료와 책을 이용해 지원해 주었다.
- 계산하는 방법에 유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 주고 받으며 흥미로워하였다.

교사의 지원
유아의 놀이가 확장되는 과정을 관찰하고 다양한 미술 재료를 준비하여 지원함

깡타반에 놀러 오세요

- 교사: 유아들이 시장놀이를 하며 물건을 들고 다니는 모습을 관찰하고 가방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양한 미술 재료를 제공해주자 유아들이 자신만의 시장가방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유아: 나는 그림 그릴거야.

  유아: 난 스티커로 꾸며야지.

  유아: 얘들아, 나는 종이로 모양으로 붙일거다.

- 유아들은 자신만의 특성있는 가방을 만들고 시장놀이에 들고가 놀이를 하였다. 자신이 만든 가방에 구매한 물건을 넣고, 돈을 꺼내면서 즐겁게 놀이 했다.

  유아: 우리 동생들도 초대하면 재미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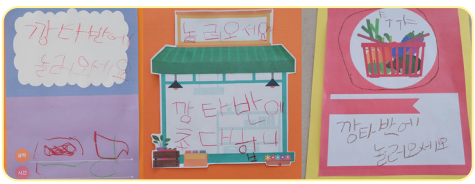
  교사: 음~ 그거 좋은 생각이다! 동생들도 초대하고 부모님도 초대하면 좋겠다.

- 초대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유아들이 고민을 하다 초대장을 만들어 보내자고 이야기 하였다.

  유아: 초대장은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유아: 친구들이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려보자.

  유아들은 교사의 도움을 받아 글씨를 스스로 적고 초대장을 완성하여 복도에 부착하여 동생 반을 초대하였다.



깡타반에 놀러 오세요

- 유아: 우리초대장을만들었으니까 시장 제목도 만들자.
- 교사는 간판 그림자료를 지원해 주었다.
- 유아: 간판이 뭐에요?

  유아: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시장 제목이잖아.

  유아: 그래 우리 만들어 보자.

유아의 관심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간판을 만들어 봄

교사의 지원

교사들과 협의를 통해 유아들이 생각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지원을 고민함

- 교사가 다양한 재료를 제공해 유아들이 오일장이 열리기 하루 전, 유아들은 교사에게 "이제 몇 밤을 자면 시장이 열려?"라고 질문을 하며 기대감이 가득했다. 그리고 다음 날 역할·쌓기 영역에서 시장놀이 더욱 확장되어 이루어졌다.
- 유아들은 한쪽에서는 아이스크림 가게, 또 다른 한쪽에서는 옷가게를 열었다.

놀이의 과정

오일장에 구경오세요

- 초대장을 만들고 간판을 만들어 동생반을 초대하여 시장놀이를 계획한 유아들은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 유아: 우리가 하고 싶은 가게를 다 만들려면 우리 교실은 다 안들어 갈 것 같아.
  유아: 안 쓰는 책상을 옮겨 보자.
  유아: 우리가 힘을 합쳐보자.
  교사: 그래 친구들 생각처럼 우리가 준비한 가게가 많아서 동생들이 오면 좁아질거 같은데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유아: 그럼 다른 반에도 만들면 어때요?
  유아: 아, 우리 반 앞과 밖에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 유아들이 의견을 나눈 끝에 교실 앞 복도에 시장놀이를 확장하자는 의견이 있어 복도에 추가적으로 시장놀이 영역을 구성하였다.
- 3~5세 혼합연령반으로 돈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를 어려워 하기도 했지만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경제 개념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그림자료와 책을 이용해 지원해 주었다.
- 계산하는 방법에 유아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돈을 만들어 주고 받으며 흥미로워하였다.

놀이 속 배움

유아의 배움

- 주제중심 교사주도 활동, 놀이에서 유아가 계획하고 주도하는 놀이로 변화
- 함께하는 놀이를 통해 사회성 발달
- 혼자 하는 놀이보다 함께 놀이하는 협동, 협력 놀이의 증가
- 사고를 확장하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며 놀이의 효능감 증가
- 놀이의 몰입시간과 지속성 증가

교사의 배움

- 세심한 관찰을 통해 3~5세 혼합연령반의 개별 수준을 이해하고 비구조화를 통해 유아들의 일상생활과 놀이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음
- 동료교사간 협의와 협력을 통해 교사 역량 강화와 놀이 중심 보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효능감 증가
- 유아의 놀이를 관찰하고 지원하는 방법에 고민해결을 위한 정보 공유
- 유아들이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 유아와 함께 답을 찾아 나가는 새로운 놀이를 경험
-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려고 노력
- 유아의 발달수준을 이해하고 요구와 흥미를 반영한 놀이 영역 구성에 대한 이해가 높아짐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보육실 안에서만 놀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아들의 흥미도와 요구 조건 등을 더욱 더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배움의 자세가 깊어졌다. ▪ 보육실 뿐만 아니라 공간 구성을 확장 시켜 복도에서도 놀이하였다.
교사의 변화	▪ 유아의 흥미를 파악한 뒤 주제를 선정하고 다른 놀이에 대하여 교사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하였다. ▪ 일주일 단위로 대소그룹 활동을 정해 하루 분량을 정하여 놀이를 하였다.	▪ 유아가 원하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였고, 유아가 주도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대소그룹을 최소화하여 유아가 원하고, 필요한 순간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유아의 변화	▪ 흥미가 있는 유아만 참여를 하였고, 흥미가 없는 유아는 심심하다고 교사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 각 연령별 놀이만 한다.	▪ 흥미가 있는 유아는 물론, 흥미 없는 유아도 시선을 두고 시간을 점차 두고 참여를 하였다. 각 연령별 놀이가 아닌 다 같이 놀이하는 것을 한다.

5. 놀이를 해봐요

연령
만1세

놀이반 소개

- 풀잎반은 현재 놀이를 해봐요 주제로 공을 이용한 신체놀이와 주변의 사물을 이용한 가작화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만 1세 유아 발달 특성 상, 한가지 놀잇감을 가지고 충분히 놀이하기 힘들며 다른 영아가 다른 놀잇감을 만지는 모습에 금방 시선이 이동하며 다른 영아의 놀잇감에 관심을 보인다.

놀이의 시작

- 실내자유놀이 시 영아의 대소근육 발달 지원을 위해 공과 와플블록을 제공해주었다. 영아는 공을 자유자재로 잡고 던지며 눈과 손의 협응력을 기를 수 있었고 스스로 높이 쌓은 블록을 가리키며 성취감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후 교사는 만 1세 영아가 가지고 놀이할 수 있을만한 크기와 부드러운 재질의 교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놀이의 과정

- 추석을 맞이하여 아이들과 전통놀이를 하러 바깥에 나왔다. 다양한 놀잇감을 보고 관심을 보이던 풀잎반 아이들은 신발을 벗어 던지고 커다란 윷놀이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며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교사가 “하나, 둘, 셋~ 누가 높이 던지나 선생님이 봐야지” 라고 하며 윷 던지기를 제안하자 영아는 “내가 높이 던질 거야” 하며 자유롭게 윷을 던지며 놀이하기 시작했다.

• 그 때 한 유아가 “선생님, ○○가 발 밟아요.” 라고 이야기하자, 이를 들은 또래가 “○○야, 발 안 돼.” 라고 연이어 말하였다. 교사는 “○○가 윷을 발로 밟고 있구나, ○○가 발로 밟아보고 싶은가 봐.”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는 계속 ○○를 가리키며 교사에게 윷을 발로 밟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다양한 방법으로 놀이를 진행할 수 있음을 전달하고자 “그럼 우리도 ○○처럼 윷으로 징검다리를 만들어볼까?” 라고 제안하자 □□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도 다리 만들래.”, 라고 대답하였다. 옆에서 이를 들은 △△도 “나도 할거야.” 라고 이야기하며 바닥에 놓인 윷을 서로 놓고 이어주었다. 교사는 또래 간의 병행놀이를 지원하고자 “우와 , 윷이 멋진 다리가 되었네. 우리 차례차례 건너보자. 조심조심~” 이라고 이야기하며 놀이가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왔다.

교사의 지원

• **교사의 상호작용 지원**

– (3차 컨설팅) 놀이흐름에 따라 교사가 영아의 놀이상대자가 되어 ‘함께 제안하며 놀이지원하기’와 ‘질문하며 놀이지원하기’로 교사의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짐. 교사가 놀이상대자가 되어 놀이지원을 함으로써 놀이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영아들의 긍정적 사회정서발달에도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었음.

• **물리적 환경 (공간) 지원**

– (2차 컨설팅) 원래 계획에서는 윷가락을 사용하여 윷놀이를 하려고 하였으나, 영아들이 던지는 것보다는 윷가락 위에 올라가는 것에 흥미가 있다는 것을 포착한 후 윷가락을 징검다리처럼 조성한 후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교사가 융통성 있게 지원함으로써 이후 영아들이 놀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놀이 지속시간도 길어지게 되었음.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영아가 놀이를 하다 한 가지 놀잇감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놀잇감을 꺼내 놀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 교사의 의도와 다르게 놀이하는 영아의 모습을 보며 관찰한 내용을 토대로 영아가 주도하는 새로운 놀이방법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 더불어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한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롭게 탐색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어떻게 놀이를 전개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교사의 변화	▪ 발달 특성 상 영아의 놀이 집중력이 짧고 놀이의 변환이 빠른 것은 이해하나, 교사로서 어떻게 놀이를 지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난감할 때가 있어 영아의 흥미와 관심에 기초하여 어떻게 놀이를 지원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웠다. 그래서 영아 주도 놀이보다 교사가 주도하에 놀이를 하는 부분이 좀 많았던 것 같다.	▪ 교사지원 실행 후 잘된 점은 교사가 같이 놀이 상대자가 되어 영아가 장난감을 이용하여 교사의 머리를 만지며 놀이하자 다른 놀이를 하던 영아도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 ▪ 보완해야 할 점은 영아가 대부분 같은 장난감에 호기심을 보여 영아 인원수보다 장난감 개수가 적어 서로 한 장난감에 관심을 보였다. 교사는 비슷한 장난감을 제시하거나 다른 장난감을 주며 이건 어떤지 의사를 물어보는데 영아는 꼭 그 장난감을 하고 싶어 하며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여 인원수에 맞게 장난감을 구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영유아의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육적 지원을 해보니 교사가 놀이에 개입하며 한 명만 혼자 하지 않고 차례차례 모두 다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자 같이 놀이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아직은 서로 먼저 하려고 하는 모습에 교사는 놀이 중간 친구와의 마찰이 생겨 중재해줌으로써 속상해하는 영아가 발생하여 놀이의 흐름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못해 그 부분이 어려웠다.
영유아의 변화	▪ 영아가 놀잇감을 자유롭게 탐색을 하지만 놀이가 오래 연결되지 못하고 탐색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교사가 제안하는 놀이에 더 의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영아 자신이 원하는 놀이를 찾기보다 다른 사람이 놀이하는 모습을 내가 좋아하는 놀이를 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놀이에 더 강한 집착을 보이며 또래 친구와 같이 놀이하기 보다는 혼자서만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려고 하며 마찰이 생기는 일이 많았다.	▪ 다른 영아가 다르게 놀이하는 모습에 영아에게 같이 놀이를 해볼 수 있도록 제안하자 영아 모두 그 놀이를 즐기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또래와의 놀이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교사가 같이 놀이 상대자가 되어주자 영아도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건영어린이집

6. 동물 기차

연령
만2세

놀이반 소개

- 하늘반은 영아기 발달 특성 상 주관이 강해 혼자놀이와 병행놀이가 드러나는 아이들 만 2세 여섯 명, 만 1세 한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주도와 배려를 습득할 수 있도록 놀이를 지원하려고 노력 중이다.
- 하늘반은 바깥놀이를 중요한 일과로 생각하고 언어나 역할, 미술, 요리활동 등도 야외에서 많이 해보려고 한다. 코로나 때문에 생각만큼은 실외로 못 나갔지만 학부모님들의 배려와 마스크 쓰기를 생활화하여 최대한 바깥놀이를 통해 놀이를 한다. 그래서인지 신체 능력이 활발한 편이며 약속과 규칙을 잘 지키며 자유롭게 넓은 공간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기 위해 지원하고자 한다.

놀이의 시작

- 처음 동물기차 놀이를 시작한 것은 □□이의 말 때문이었다. 초롱반(만 0세) 활동중 종이로 만든 집이 있었는데 □□이가 좋아하며 거기서 놀다가 하늘반에도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교사가 “그러면 하늘반에도 만들어 줄게” 했는데 나중에 온 하늘반 아이들이 서로 각자의 집을 가지고 싶다고 해 몇 개를 만들었다. 나란히 늘어놓은 집을 보고 ○○가 기차 같다고 해 교사가 “그러네 작년에 우리 탔던 기차같네”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교사가 “집을 다시 기차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여 집을 줄로 연결하고 검정 색종이를 잘라 바퀴를 만들어 보았다. “그러네 작년에 우리 탔던 기차같네” 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이에 교사가 “집을 다시 기차로 만들어보자” 라고 하여 집을 줄로 연결하고 검정 색종이를 잘라 바퀴를 만들어 보았다.

놀이의 과정

- 놀이를 하던 중 아이들이 팝큐브를 가지고와 기름을 넣는 시늉을 하였다. 이에 교사가 기차에 구멍을 뚫어 주유구를 만들어주었고 아이들이 진짜 기차가 갔으면 좋겠다고 해 기차 아래 바퀴 달린 썰매를 깔아 기차가 굴러 갈 수 있게 해주었다. 만 0, 1, 2세 아이들이 섞여 있으면 위험할 거 같아 제지하려고 했으나 영아들의 놀이상황을 관찰하며 동생들이 타면 안전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주고 기차를 끌어주기도 했다. 기차를 끌고 멀리 가기를 원해 놀이 매트를 치워 공간을 넓혀주었다. 기차는 인형의 집이 되었다가 아이스크림 가게도 되었다가 잠을 자는 기차가 되기도 했다. 아이들이 만든 기차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하원하기 전 교사에게 기차는 정리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 기차에 이어 박스를 이용한 가작화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하늘반 어린이가 동물 모형을 이용해 블록과 박스를 이용해 놀이를 시작하자 교사는 박스를 꾸밀 수 있는 부속자료들을 제공해주었다. 이어 하늘반 어린이는 스티커와 사인펜, 색테이프를 이용하여 박스를 꾸미고 '앵무새 집'이라고 명명하였다. 새에 관한 아이들의 호기심이 계속 이어져 새집, 둥지, 새 만들기에 이어 신체로 새 날개 표현, 새 날개 표현은 넓은 공간이 필요해 유희실로 나가 신체활동을 하였다. 날개 표현을 위해 보자기를 제공하고 새처럼 날아보기 표현을 위해 뛰어도 되지만 친구들과 부딪치지 않게 한 쪽 방향으로만 뛸 것을 제안했다. 교사도 보자기를 두르고 긴 블럭으로 꼬리 표현을 한 뒤 영아들과 새처럼 나는 신체 표현을 해보았다. 새에 관한 이야기가 길어져 2주째 놀이가 진행되고 있다.

교사의 지원

- **교사의 상호작용 지원**
  - (2차 컨설팅) 놀이흐름에 따라 '제안하며 놀이 지원하기'와 '질문하며 놀이 지원하기'로 교사의 교육적 지원이 이루어짐.
- **물리적 환경 (공간) 지원**
  - (2차 컨설팅) 놀이흐름에 따라 실내놀이에서 실외놀이로 장소를 변화하여 놀이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음. 이는 교사가 '팝큐브'라는 놀잇감에 흥미를 보이며 즐기는 영아들을 관찰한 후, 놀잇감 특성 상 대근육을 사용하여 놀이하려면 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실외로 장소를 옮겨서 지원하게 되어 놀이의 지속시간도 길어지고 영아들이 무척 흥미롭게 놀이하였음.
- **물리적 환경 (시간) 지원**
  - (3차 컨설팅) 영아의 흥미에 따라 놀이시간을 계획했던 시간보다 연장하여 지원하였음. 이는 교사가 관찰을 통해 영아의 흥미에 따른 놀이의 시작점을 찾아 적절한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놀이 지속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물리적 환경 (자료) 지원**
  - (3차 컨설팅) 교사의 사전계획에는 없었지만, 관찰을 해 보니 영아가 앵무새라는 것에 관심이 생긴 것을 빠르게 포착한 후 둥지를 만들 수 있는 종이박스와 박스를 꾸밀 수 있는 부속자료들을 제공해 주었음. 이후 영아들의 놀이 지속시간은 점점 길어짐.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아이들의 생각보다 교사 계획 하에 놀이가 진행되기도 하였고 계획대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계획했던 놀이를 꼭 실행하려고 했던 것 같다.	▪ 지금은 놀이뿐만 아니고 일상생활, 기본생활, 안전교육도 교사 계획이 아닌 영아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의 변화	▪ 아이들의 놀이가 많아야 안전사고가 덜 일어난다는 생각에 영역마다 놀이 계획을 디테일하게 많이 해놓는 편이었다.	▪ 사진이나 책을 여러 가지 비치해두고 몇 명의 아이들의 놀이 시작점을 유심히 보려고 하고 있다. 그랬더니 아이들의 놀이시작점, 주도성, 패턴, 성향 등이 순차적으로 보인다. ▪ 또한 컨설팅 전에는 일지 쓰는 것도 부담을 느꼈으나 컨설팅을 받고 난 후 일지에 대한 생각도 바뀌어 동료 교사들에게 전달교육도 하고 있다.
영유아의 변화	▪ 오전에 교사에게 와서 어떤 장난감을 준비해 놓았냐고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 지금은 이 반 저 반 다니며 주도적으로 놀이를 찾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7. 아라반 색깔은행

연령
만4세

놀이반 소개

- 아라반은 만 4세 장애통합반입니다. 18명의 일반유아와 3명의 장애유아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라반 모든 유아들은 일과 내(실내·외) 접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관심이 많습니다.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기반으로 유아들의 즐거운 상상, 재미있는 호기심과 생각들이 모여 다양한 형태의 놀이가 일과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놀이의 시작

- 지난 6월, 예상 놀이주제인 '우리 동네'를 통해 시장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장놀이가 진행되는 가운데 유아들이 물건을 사고 판매할 수 있는 '돈'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색깔의 색종이를 이용해 돈을 만들며 놀이에 참여하였습니다. 시장놀이가 마무리되고 유아들과 함께 '남은 색종이 돈을 이용해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의 공공기관인 돈을 이용해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는 '은행'을 만들어 '아라반 색깔돈 은행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이의 과정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 지원	놀이사진
1. 유아 : "우리 동네 공공기관인 '은행'을 만들어 놀이하고 싶어요" **교사 : "어떤 걸 이용해서 은행을 만들 수 있을까?"** ▪ 재활용품을 이용해 은행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적절한 크기의 재활용품 찾아보기, 다양한 미술재료, 도구를 이용해 은행 안내판 꾸며 보기	

놀이의 흐름에 따른 교사 지원	놀이사진
2. 유아 : "돈은 어떻게 해야 해요? 색깔이 정말 많아요." 교사 : "돈을 어떻게 나누어볼 수 있을까?" ▪ 여러 바구니를 사용해 색깔 돈을 분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3-1. 유아 : "우리 은행을 온 고마운 손님에게 다른 선물을 주고 싶어요." 교사 : "은행 손님에게 어떤 선물을 줄까?" ▪ 다양한 모양 도장, 도장 종이 제공하기	
3-2. 유아 : "은행놀이를 하려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해요." **"나도 빨리 놀이하고 싶은데.."** 교사 : "은행놀이에는 또 어떤 역할이 있을까?" ▪ 다양한 역할 찾아보기 → 다양한 역할 명찰 만들기(은행원, 안내원, 손님 등) ▪ 다양한 역할 찾아보기 → 새로운 역할 '손님' → "내가 다녀온 은행은 손님이 앉아서 기다리는 곳이 있었어!" → 은행 손님이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의자 지원하기	
4. 유아 : "은행에 더 많은 사람이 왔으면 좋겠어요!" 교사 :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올까?" 유아 : "은행을 소개해요!" 교사 : "어떤 방법으로 소개할까? 유아 : "소개판을 만들어요." 교사 : "우리 색깔돈 은행을 소개할 수 있는 소개판을 만들어보자." ▪ 색깔돈 은행을 소개할 수 있는 소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은행 소개 문구 생각해보기, 다양한 미술도구, 재료를 이용해 은행 소개판 꾸며보기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시장놀이가 확장될 거라는 교사의 생각과 달리 은행놀이가 시작된 것에 대해 교사가 빠르게 대처하여 상자를 이용하여 은행창구를 만들고 대기석 등 공간을 구성하여 준 부분을 칭찬함
- **인적 자원**
  - 유아의 놀이지원에 있어서 교사가 너무 앞서나가지 않도록 관찰하는 자세를 강조함. 돈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는 개념을 이해하기 보다는 색깔돈으로 유아의 은행놀이가 진행된 것은 조금 아쉬움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예상놀이 주제를 통해 주로 일과 내 놀이와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 예상놀이 주제를 통해 일과가 이루어지기보다는 유아의 흥미와 관심 주제로 놀이와 그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사의 변화	▪ 개정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한 놀이 중심에 따른 일과 진행 및 유아들의 놀이 지원 방법에 대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일과 내, 유아들이 흥미와 관심을 갖는 다양한 상황과 놀이 주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놀이나 활동에 대한 유아·동료교사의 평가를 통해 이전보다 보완된 새로운 놀이,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변화	▪ 예상놀이 주제를 관련된 놀이나 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 흥미를 가지고 있는 놀이주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유형의 놀이와 활동에 큰 즐거움을 느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동에 대한 다양한 창의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놀이를 이끌어내기도 합니다.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예닮어린이집

8. 우리가 만드는 세상

연령
만3,4세

놀이반 소개

- 평소 미술놀이, 블록놀이 등 창의적인 놀이에 흥미를 느끼며 자유롭게 표현하고 자신이 만든 것을 합쳐 마을을 만드는 등 협동놀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놀이의 시작

- 산책을 나가서 우리 동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경험했던 장소나 교통수단 등을 이야기를 하다가 교실에 들어와 자신의 아파트를 블록으로 만드는 유아가 있어 이를 본 다른 유아가 자동차, 기차 등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놀이가 이루어졌습니다.

놀이의 과정

- 우리 동네를 만드는 놀이가 이루어지면서 다양한 블록들을 제공해주어 단단한 건물을 만들 때 쉽게 부서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고, 유아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마을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동네 지도, 다양한 종이를 지원해줘서 협동놀이가 확장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흥미영역 위주로 교실이 구성되다보니 놀이 공간이 좁게 느껴지는 교실 환경에 대해 영유아의 놀이공간이 좀 더 지원되도록 고민해볼 것을 제안함

- **인적 자원**

– 수시로 교사들이 모여 지원해줄 놀이감, 놀이자료에 대해 논의할 것을 안내함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교사가 계획한 주제에 맞게 준비한 교구를 유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유아들이 그 주제에 맞는 새로운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를 시도하였습니다.	▪ 다양한 재활용품을 활용해 유아들이 놀이를 이끌어가고 자신이 생각하는 놀이를 표현하고 관심을 보이는 다른 유아들과 협동놀이를 하며 새로운 주제를 각자 만들어가며 놀이를 이어나갑니다.
교사의 변화	▪ 계획된 주제에 맞춰서 놀이를 이끌어가려고 노력하였고 무언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놀이 준비를 원해왔습니다.	▪ 유아들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놀이는 무엇인지 세심하게 관찰하려는 자세가 생겼고 협동놀이를 좋아하는 유아들이 놀이를 자유롭게 만들어가고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인정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며 기존 놀이의 편견이 사라졌습니다.
영유아의 변화	▪ 주제에 맞춰 놀이를 하다 보니 별로 흥미가 없는 주제일 때는 날마다 반복적인 놀이를 하는 모습들이 관찰되었고 주제에 맞는 새로운 놀잇감을 가지고 놀기 위해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 내가 하고 싶은 놀이를 스스로 만들어가고 친구들과 함께 협동 놀이를 이루어가면서 주제를 직접 만들어가니 놀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자신이 만들어가는 놀이라서 놀이에 대한 표현과 확장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9. 따라 그리기

연령
만4세

놀이반 소개

-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놀이의 시작

- 색칠공부를 뽑아달라고 요청하는 유아들이 많아 그림 도안을 뽑아 코팅해주고 유아들이 보고 따라 그려보도록 제안했습니다.

놀이의 과정

- 보고 따라 그리는 것이 어려웠던 유아들이 그림이 비치는 재질의 종이를 요청하고 교사는 OHP 필름과 반투명 종이를 제공하여 유아들이 따라 그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유아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곤충, 캐릭터 등은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투명종이를 지원하여 따라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따라 그리는 것에서 더 발전하여 보고 그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도 필요해보임

- **인적 자원**
  - 유아들의 놀이가 진행될 때 지원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같이 나누는 놀이학습공동체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칭찬함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그림 도안 위에 반투명 종이를 대고 따라 그리는 놀이를 한다.	 ▪ 교사는 보고 그리기를 제안하고 유아들이 그림을 보고 그려보는 놀이를 시작하였다.
교사의 변화	▪ 유아들이 보고 그리는 것이나 스스로 하는 것을 어려워 할 것이라 생각함.	▪ 유아들의 유능함을 믿고 스스로 해볼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다.
영유아의 변화	▪ 놀이를 하기 전 교사에게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자신감 없는 모습이 종종 보임	▪ 놀이에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 해볼 수 있다.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시립인창어린이집

10. 아기돼지 삼형제 극놀이

연령 만5세

놀이반 소개

- 온누리반은 재활용품을 사용한 만들기 놀이 /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밴드 놀이 / 쌓기 교구를 조작하며 만든 팽이와 집으로 협동하여 놀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신체 에너지가 많은 남자 친구들이 주로 놀이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고, 1, 2, 3월 생일인 친구들이 많아서 주도적인 놀이를 즐겨하는 유아들이 많습니다.

놀이의 시작

- 유아들이 손인형 놀이를 하며 극놀이 표현을 즐겨하였고, 유아들의 흥미를 반영하여 극놀이 지원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막상 극놀이를 진행하니 유아들이 대사를 말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자유놀이 시간에 뮤지컬 음원을 재생해주었고, 유아들은 흥미를 보였습니다. 유아들의 흥미를 따라가 뮤지컬 극놀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놀이의 과정

- 교사가 제공한 아기돼지 삼형제 머리띠를 쓰고 동화를 모방하여 집을 짓는 놀이가 이루어짐 → 교사가 제공한 음원에 맞추어 함께 율동을 하고 음률 놀이에 참여함 → 극놀이 대사를 읊어보며 짧은 연극을 반에서 진행함 → 자신감을 얻은 반 친구들은 유아반 동생들을 직접 초대해보며 어린이집에서 연극을 진행해보기로 하였음 → 연극 진행 전에 직접 소품을 만들어 극 현장을 구성함 → 직접 연극에 참여하고 관객이 되어 연극을 즐겨봄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아기돼지 삼형제 머리띠, 뮤지컬 음원, 전지(극놀이 배경), 미술도구, 잔디교구, 블록교구, 나무 교구 교실내 놀이 교구 등
- **인적 자원**
  - '아기돼지 삼형제' 극 놀이 해설 및 대사 지원 , 연극 공연 장소 전체적인 소품 위치 지정 및 관리 감독, 유아들이 함께 정한 율동을 함께 따라해 주며 회상할 수 있게 도움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주된 놀이 이외에 유아들이 개개인으로 흥미를 보이는 놀이 영역은 추가로 놀이 지원을 하였습니다.	▪ 유아들에게 교육적 효과가 있는 주된 놀이(유아의 흥미가 반영된)를 설정하여 놀이를 지원하기로 하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변화	▪ 유아들의 흥미를 반영한 놀이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한 놀이를 여러 가지 제공하였습니다.	▪ 유아들이 놀이 과정에 집중하여 협동놀이를 할 수 있도록 의미 없는 놀이는 적절히 제한하며, 주된 놀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영유아의 변화	▪ 유아들이 개개인마다 원하는 놀이를 하게 되어 각 영역에 고르게 놀이가 이루어졌지만 다소 산만하게 여러 가지 놀이를 한 번에 하게 되어 놀이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유아들이 협동하여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니 서로 도와서 놀이하거나 반복하여 놀이하게 되어 확장과 변형이 원활히 이루어졌습니다.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산마루어린이집

11. 목욕탕 놀이

연령
만3세

놀이반 소개

- 만 3세반으로 주로 십자블록, 베이블록 놀이, 그림그리기 등을 좋아함. 하나의 놀이를 집중적으로 하다가 다른 놀이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음.

놀이의 시작

- 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그림자료를 본 유아들이 목욕탕을 블록으로 만드는 모습을 보며 목욕탕 놀이를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놀이의 과정

- 유아들이 블록으로 목욕탕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벽면에 목욕탕 그림을 붙여주자 그 앞에서 놀이를 하다가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파란색 비닐로 물이 나오는 모습을 표현하여주자 손씻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등 활발한 놀이가 진행됨.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목욕탕 그림 환경 구성, 파란색 비닐로 물이 나오는 것 표현, 목욕탕 의자
- **인적 자원**
  – 유아들이 처음에 극놀이하는 것은 머뭇거려 교사가 손을 씻는 시늉을 해봄.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유아들이 놀이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교사 참여가 많았음.	▪ 놀이를 관찰한 후 물리적 지원을 해주니 놀이가 조금씩 풍부해지는 모습이었음.
교사의 변화	▪ 놀이에 교사가 참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이 많았음.	▪ 적극적인 관찰을 하게 되며 유아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게 되는지 대화에 집중하게 되었음.
영유아의 변화	▪ 매번 비슷비슷하게 놀이를 하는 유아들의 모습	▪ 유아들의 놀이 흐름에 맞춘 환경적 지원, 교사의 관찰과 참여로 놀이가 더 활발해짐.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안델센어린이집

12. 목욕탕 놀이

연령
만4,5세

놀이반 소개

- 만 4~5세 혼합반과 장애통합반으로 유아들 간 놀이에 개별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놀이의 시작

- 교사가 미리 준비해 둔 놀이매체인 목욕용품들과 제시된 목용탕 그림들을 보고서 놀이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하며 “이거 우리 집에도 있는데”, “언제 우리 목욕탕에 갔었어요.”하며 매체들을 꺼내어 사용해보기 시작하였다.

놀이의 과정

- 처음에는 어색해 하던 유아들이 하나둘씩 같이 참여하여 “이거 내가 먼저 하고싶었던 건데...” 하며 꺼내보는 아이들과 목욕바가지를 고르기 시작하며 놀이가 진행되었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목욕바가지, 때수건, 수건, 목욕가방, 거품비누(핸드워시 제시), 작은 물대야(물을 받아 줌), 흘릴 수 있으므로 걸레도 준비, 표
- **인적 자원**
  - 매표소 직원, 안내, 음료수 판매원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교사가 설명해 준 놀이에 국한	▪ 유아 스스로 놀이에 변화를 주고 새로운 놀이로 진행되기도 함
교사의 변화	▪ 정해 놓은 주제에 맞춰 놀이를 진행. 교사가 필요한 자료 및 준비물 제시.	▪ 유아들이 놀이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
영유아의 변화	▪ 매번 비슷비슷하게 놀이를 하는 유아들의 모습	▪ 스스로 놀이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거나 교사에게 요구하여 놀이 진행.

13. 컵쌓기

연령
만1세

놀이반 소개

- 새싹반은 블록이나 새로운 재료나 교구에 흥미를 느끼며 책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놀이의 시작

- 영아들이 물을 마시는 컵에 관심을 보여 쌓기 컵을 제공해주자 영아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색의 컵을 탐색하며 놀이가 시작하였다.

놀이의 과정

- 탐색을 한 영아가 컵을 그냥 안고만 있어 교사가 다른 색의 쌓기컵을 사용하여 컵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자 영아가 관심을 보이며 교사의 모습을 모델링하여 쌓아보기도 하고 볼링 동물핀과 함께 컵에 넣어보며 동물의 집을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영아도 볼 수 있었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교실이 흥미영역 위주로 구성되다 보니 너무 많은 종류의 놀이감이 있어보여 영아들이 좋아하는 놀잇감을 충분히 구성하여 주고 놀이감의 제한을 두지 않고 비정형화된 매체의 중요성을 안내함

- **인적 자원**

– 영아들이 놀이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나친 언어적 상호작용보다는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안내함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놀이를 교사가 위주로 했을때는 하루에서 이틀 사이로 놀이가 끝나는 모습을 보였다.	▪ 영아들로부터 놀이를 시작하여 매일매일 같은놀이에서 확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의 변화	▪ 놀이 중심으로 바뀌었다는걸 알면서도 월안에 있는 내용을 영아들에게 제공해주며 놀이보다는 활동을 할 때가 종종 있었다.	▪ 컨설팅을 받고 놀이에 시작은 영아들로부터 나온다는 걸 인지하고 영아들이 흥미 있어하는 걸 더 흥미롭게 놀이할수 있도록 놀이지원을 하고 있다.
영유아의 변화	▪ 영유아들이 활동을 할 때에는 교사가 제공해줄 때까지 기달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컨설팅 후에는 놀이를 영아들이 먼저 시작하여 교사에게 놀이 설명을 짧은 단어로 설명해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영아가 놀이를 설명해줄 때 교사는 언어적으로나 비언어적(미소나 끄덕임)으로 상호작용도 지속적으로 해주었다.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대방시그니처어린이집

14. 바닷 속 친구들

연령
만1세

놀이반 소개

- 만 1세 라임반은 1월생부터 7월생까지 언어표현이 능숙한 영아와 짧은 말소리로 표현하는 영아가 함께 놀이하고 상호작용하며 성장하고 있다. 주로 반복적인 탐색을 즐기며, 쌓기놀이와 역할놀이, 책읽기 등에 선호도를 보인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또래의 놀이를 모방하고, 모방하면서 놀이가 한 단계 성장하며 서로 상호보완하며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다.

놀이의 시작

- '내 장난감을 소개해요'라는 주제로 가정에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1개씩 어린이집으로 보내줄 수 있도록 하였다. 로보카 폴리, 토끼 인형, 공룡 등 여러 가지 장난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 실리콘 문어 장난감에 모든 영아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며 문어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가 시작되었다.

놀이의 과정

- 유희실에 상시 비치되어있는 도서영역에 유아용 관찰 도서가 많은데 그 중 고래, 문어, 조개 등 해양 생물들에 대한 책을 영아가 스스로 골라 읽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다. 영아가 책을 읽을 때 궁금해하는 부분을 다양한 억양과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해 이야기 해주며 흥미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 유희실에서 뿐만 아니라 교실에 해양 생물 관찰 도서를 비치하여 영아가 흥미 있어 하는 부분을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실에 해양 생물 관찰 도서, 해양 생물 그림 종이를 준비하여 영아의 놀이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종이에 자유롭게 끼적이며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 책에 관심이 많은 영아는 교사에게 읽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책 속에서 보았던 문어와 내 머릿속에 있는 문어의 형태를 떠올리며 그림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문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문어에요~" 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며 다양한 영역을 어우르며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스티로폼 접시에 실제 문어, 조개, 낙지 등 해산물 그림과 함께 평소에 즐겨 노는 과일도 붙여 제공하였더니 과일보다 해산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며 해산물 소품을 바구니에 담고 모형지폐로 값을 지불하는 흉내도 내며 역할 놀이(시장놀이)가 이루어졌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교실에 해양 생물 관찰 도서를 비치하여 영아가 흥미 있어 하는 부분을 지원하였으며, 스티로폼 접시에 실제 문어, 조개, 낙지 등 해산물 그림 등을 이용해 실제 모형을 만들어 지원하였다.

• **인적 자원**

– 영아가 책을 읽을 때 궁금해하는 부분을 다양한 억양과 의성어와 의태어를 활용해 이야기 해주며 흥미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쌓고 무너트리기, 비의도적인 그림과 끼적이기 등 놀이 주제와 관련 없는 탐색 위주의 놀이가 이루어졌다. 교사가 준비한 주제에 따른 놀이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호기심을 보였으나 잠깐의 흥미를 보이고 말았다.	▪ 교사가 준비한 주제였을지라도 영아가 흥미를 보이는 주제와 놀이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선정해놨던 주제를 과감히 변경하며 영아 위주의 놀이가 이루어졌다. 영아가 흥미를 보이는 주제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역을 확장하며 다양한 영역을 어우르며 놀이가 이루어졌다.
교사의 변화	▪ 교사가 계획한 놀이에 영아가 흥미를 보이지 않아도 놀이의 시작을 교사가 먼저 권유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놀이의 마무리도 교사가 정하며 놀이의 흐름이 교사 주도로 이루어졌다. 놀이의 흐름을 교사가 정하다 보니 놀이의 확장도 자연스럽게 교사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 영아가 먼저 제안한 놀이에 더 귀를 기울이며 영아가 필요로 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며 놀이를 지원하였고, 참여하는 참여자의 역할로 놀이가 이루어졌다. 때에 따라 적절히 상호작용을 하고, 놀이 상황에 어울리는 놀잇감을 제공하며 영아의 놀이에 대한 흥미가 흥미로 끝나지 않고 놀이의 확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유아의 변화	▪ 교사가 생각하고 계획한 놀이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역할인 영아는 이 놀이에 흥미가 없어도 교사가 마무리를 할 때 비로소 놀이가 끝나게 되었다. 교사 주도의 놀이를 경험할 때 지루해하고, 흥미 지속 시간이 짧았다. 교사가 계획한 놀이를 하면서 놀이의 태도는 소극적이였으며, 놀이 시작을 영아가 해볼 수 있도록 하였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하는지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 교사에게 자신이 흥미를 보이는 놀이를 자연스럽게 주장하게 되었다. 놀이의 시작을 영아가 진행하다 보니 놀이를 참여할 때 더 적극적이고 밝은 표정을 관찰할 수 있었다. 놀이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을 교사에게 표현하기도 하고, 놀이 상황에 따라 교사에게 상대 역할을 요청하기도 하며 놀이를 이끌어가려는 모습이 보였다. 영아의 놀이를 교사가 함께 참여했을 때 선호도가 높았다.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덕정따복어린이집

15. 알록달록 가을이예요

연령
만2세

놀이반 소개

- 1월생부터 12월생 까지 다양한 개월 수의 남자 7명 여자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새로운 놀잇감에 관심이 많으며 요구도와 감각이 다르고 몇몇 영아가 놀이를 시작하면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한다.

놀이의 시작

- 여러 가지 색깔(빨강, 주황, 초록, 노랑)의 단풍잎 모양으로 종이를 자르고 바구니에 담아 놓은 것과 지난주 활동과 연계해 가을 자연물 활동자료를 벽면에 게시해둔 것을 발견한 영아가 단풍잎 종이를 담은 바구니를 살피며 모양과 색을 탐색하며 바구니에 담긴 단풍잎 종이를 손으로 구겨보거나 바닥에 던지며 흩어지는 모습을 보며 '이거 뭐지?'하며 주변 영아들의 관심을 끌며 놀이를 시작하였고 몇몇 영아는 밀짚모자에 관심을 보이며 머리에 착용해 본다.

놀이의 과정

- 가을과 관련된 동요(도토리, 코스모스, 허수아비 등)를 ○○이가 흥얼거리며 부르자 □□이가 함께 노래를 부르며 허수아비 율동을 하고 동작으로 표현한다.
- ◇◇◇과 △△이가 블록 놀이를 멈추고 지난주에 만들어 보았던 곡식이 든 마라카스를 관찰하며 "이것 봐, 콩이 있어!, 검정색이네"라고 말하며 마라카스를 흔들어보고 "무슨 소리가 나!"하고 이야기한다.
- 레고 블록을 앉은 키 만큼 쌓으며 단풍나무를 구성해 보고 "단풍나무처럼 엄청 높지?" 하고 □□이게 질문하자 □□이는 "밖에서 봤었어!"하고 답한다. ○○이는 레고 블록에 다양한 색깔의 단풍잎 종이를 붙이며 "단풍잎은 내가 좋아하는 빨간색이야."라고 말한다.

- ☆☆는 실제 나뭇잎을 보며 “단풍잎 만들거야”하며 맥포머스 자석 블록으로 구성해 보고 “이것 봐봐~! 단풍잎 모양이랑 똑같지?”하고 말하며 실제 단풍잎을 이리저리 살피며 탐색한다.
- 실외로 이동하여 바람에 의해 나뭇잎이 흩날리자 “나뭇잎이 떨어져!”, “우와~! 비가 내린다!” 하며 관심을 표현하고 나뭇잎의 색깔, 크기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어 보며 자연물을 탐색한다. 몇몇 영아들이 자연물을 바닥에 모으자 “나도”, “내 것도 있어”하며 자연물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이것 봐봐! 엄청 많네!”하고 말한다.

- 교실에서 다양한 색깔찾기 활동 중 한 영아가 파라슈트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자 옆에 있던 또래들도 입을 모아 “파라슈트 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한다. 교사가 파라슈트를 준비해주자 색깔을 말하고 그 위에 서 보며 색깔 맞추기 활동에 흥미를 보인다.

  교사가 “단풍잎 색깔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며 힌트를 주자 영아들은 큰 목소리를 내며 “빨간색!!!”하고 빨간색 파라슈트 위에 선다. “선생님 너무 재밌어요! 얘들아 재밌지?”라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자 다른 영아들 또한 “나도~ 나도!”, “재밌어”하고 답한다. 교사가 ‘그대로 멈춰라’ 동요를 불러 준 뒤 어떤 색을 하면 좋을지 묻자 이번에는 영아가 주도하여 “노란색!”하며 외치자 다른 영아들이 노란색 파라슈트 안에 서서 색깔을 맞춘다. 파라슈트에 선 ▽▽는 “노란색은 은행잎이야.”하고 말한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영아들이 어린이집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자연물을 관심 가지며 자유롭게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실외활동을 나가기 전 교실에 비치된 그림 자료나 자연물 등을 이용해 사전활동을 해 보며 관심을 가져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실제 자연물 이외에 종이 모양의 나뭇잎, 스티커 등을 함께 제공하여 놀이의 사용방법을 제한두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교사의 지원

• **인적 자원**

- 교실, 공동놀이실 뿐만 아니라 실외로 이동하여 확장놀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영아들이 충분히 놀이하고 싶은 시간까지 즐겁고 자유롭게 놀이 할 수 있도록 영아들의 놀이를 존중하였다.
- 자연물의 경우 탐색하다 자칫 다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뾰족한 돌이나 나뭇가지 등은 주의하며 놀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실외활동을 하면서 영아들이 직접 눈으로 관찰하고 손으로 탐색하며 솔방울, 나뭇잎, 돌 등 다양한 자연물을 감각적으로 탐색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산책을 하며 이동하는 동안에도 바닥에 지나가는 개미를 보는 몇몇 영아들에게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탐색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다. 솔방울을 한 웅큼 품에 쥐고 있는 영아에게는 크고 작은 것을 놀이를 통해 알려주고 교사의 간단한 질문을 통해 어떤 방법으로 놀이하고 싶은지 묻자 솔방울을 던져 보거나 굴려 보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고 또래의 말을 듣고 모방하는 활동과 동시에 나뭇잎의 색을 구분하여 나열하는 등의 확장놀이가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놀이자료를 제공해 주었을 때 관심을 보이는 영아가 있는 반면, 기존에 제공한 놀잇감으로 놀이하는 영아들의 모습을 보였으며 영아의 개별 특성에 따라 집중도가 짧고 놀잇감을 혼자 보유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 영아들이 한꺼번의 많은 양을 혼자 놀이하는 영아에게는 놀잇감을 나누어 사용하는 방법과 친구에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 하고 함께 놀이하는 기쁨에 대해 안내해 주었고 놀잇감을 다양한 방법으로 가지고 활동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 스스로 확장놀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교사의 변화	▪ 교사의 주관적인 판단 및 안전에 치우쳐 영아가 놀이하는 중간중간 지속적으로 놀잇감을 정리하고 놀이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놀이의 흐름을 깨는 경우가 있었다.	▪ 영아의 기질(개인차)에 대한 이해와 영아의 반응을 기다려 주고 영아의 주도에 따라 놀이의 방해 또는 위험하지 않는 선에서는 놀이가 다 끝난 후 정리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
영유아의 변화	▪ 놀이 시 문제해결을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전적으로 교사에게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영역에 따라 놀이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 놀잇감으로 다툼이 생길 때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황에 맞는 반응을 해주며 교사에게 의존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었고 영아들의 관심도와 흥미에 따른 놀이 모습을 교사가 말로 표현해주며 놀이의 교감과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였다.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리첼아이어린이집

16. 나,너,우리의 바다이야기

연령 만2세

놀이반 소개

- 만 2세 아삭아삭 사과반은 투 담임제로 14명의 영아들이 함께 지냅니다.
- 1월~4월생 8명, 8월~9월생 3명, 12월생 3명으로 개월 수에 따라 놀이의 형태가 보이고 있으며 주로 개월 수가 많은 영아들이 놀이를 주도하여 또래들과 어울려 놀이를 합니다.
- 개월 수가 적은 영아들은 놀이를 주도하는 영아들을 따라 하거나 혼자 놀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쌓기놀이와 역할놀이를 특히 좋아하며 이 속에서 놀이가 확장되고 놀이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각자의 색이 서로 어우러져 알록달록 무지개처럼 예쁘게 빛나는 아삭아삭 사과반(만 2세)입니다.

놀이의 시작

- ○○가 아쿠아리움을 다녀온 후 다음 날 등원하면서 상어 인형을 들고 온다.
- ○○는 “나 상어보고 왔다.”라고 말하며 상어 인형을 친구들에게 보여준다. ○○는 매일 상어인형을 가지고 다니며 관심을 지속적으로 보인다.
- 친구들도 그 모습에 “상어는 바다에 살아.” “바다에 물고기들도 있어.”라고 하며 관심을 함께 보인다. “우리집에도 물고기 장난감 있어.”라고 말하며 사과반 아이들중 몇 명이 가정에 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와 놀이를 한다. △△는 파란 블록만 꺼내며 “여기는 바다야.”라고 말하며 놀이를 한다.
- 영아들은 각자의 경험을 토대로 흥미를 보이며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놀이의 과정

- 영아들의 지속적인 바다놀이에 관심을 보여 교사는 바닷속 그림을 지원하고 교실바닥에 바닷속 그림을 부착한 후 영아들의 놀이를 관찰한다. 영아들은 바로 바닷속 그림을 보며 “물고기다” “여기도”라고 말하며 교실에 있는 돋보기 교구를 가지고 와 놀이하는 모습을 보인다.
- 교사는 “잠수함으로 바닷속을 구경할 수도 있어.”라는 말에 “잠수함이 뭐에요?”라고 하며 궁금해한다. 교사는 잠수함 그림을 보여주고 영아들이 잠수함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를 지원한다. 또한 잠수함에 친구들을 태우고 싶다는 말에 친구들 사진을 지원한다. 영아들이 직접 가위질하여 오린 후 자신이 만든 잠수함에 친구 얼굴을 붙여 완성한 후 바닷속 그림 위에 가지고 다니며 놀이를 한다.
- 바닷속 물고기들 모습에 낚시를 하고 싶은 □□는 교실에서 집게 교구를 가지와 물고기 잡는 모습에 교사는 낚시대 교구를 지원하여주고 물고기들을 영아들과 함께 만든다. 영아들은 낚시 놀이에 즐거움을 느끼며 놀이를 계속 지속된다.

-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자 영아들은 물놀이 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물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수영놀이를 한다.
- ◇◇가 블록으로 차를 만들자, ☆☆가 다가와 “타도 돼?”라고 말하자 “응”이라고 말한다. 그 모습에 다른 영아들도 하나 둘 타더니 “출발”이라고 외치며 “바다로 가.”라고 말한다.
- 바다에 도착한 영아들은 수영복도 입고 튜브를 타며 물놀이를 하고 교사가 지원한 배를 영아들은 연결하여 함께 타며 뱃놀이를 한다. 영아들은 함께 어울려 놀이를 지속한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지원

1. 자료지원

– 교실을 바다로 환경을 구성해주며 영아들의 흥미에 따라 만들기 재료들을 제공하였다. 가정과 연계하여 놀잇감과 물놀이용품을 지원받아 제공하였다

2. 공간확장

– 쌓기 영역에서 시작한 놀이는 교실 전체로 확장되었다.

– 유희실까지 확장되면서 원의 지원으로 범퍼카를 대여하여 '바닷속 탐험'놀이로 확장하였다.

3. 놀이 기간

– 6월부터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놀이는 9월까지 놀이가 이어 갔다. (바닷속 탐색놀이 → 낚시놀이 → 해수욕장놀이)

• 인적 자원

1. 상호작용

– 영아가 주도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교사는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반응을 해주었다.

– 또래끼리 대화에 교사는 개입을 자제하고 또래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놀이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교사가 계획하고 활동을 하기를 바라며 놀이를 유도하였다.	▪ 교사가 계획을 하여도 영아에게 주도권을 주고 영아들의 놀이를 지원하게 되었다.
교사의 변화	▪ 영아의 말에 질문을 많이 하거나 교사의 주도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았다.	▪ 영아의 행동을 읽어주며 영아들의 대화에 귀 기울여 들으며 관찰하는 여유가 생겼다.
영유아의 변화	▪ 교사에게 허락을 받거나 교사에게 해달라는 모습이 있었다.	▪ "이 놀이 할래요." , "지금 하는 놀이가 더 재미있어요.", "이 노래 틀어주세요." 등 놀이를 주도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옥정어린이집

17. 나뭇잎은 요술쟁이인가봐~

연령
만2세

놀이반 소개

- 저희 만 2세 가람반 친구들은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질문도 많고 직접 보고 만져보면서 탐색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놀이의 시작

- 실외활동을 나가 산책을 하던 중 떨어진 나뭇잎 위를 걷다가 한 명의 영아가 “선생님 나뭇잎에서 소리가 나요”라며 나뭇잎 위를 계속 걷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옆에 있던 영아들도 나뭇잎이 많이 쌓인 곳을 찾아 밟아보며 나뭇잎의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명의 영아가 “선생님 나뭇잎이 찢어졌어요. 내가 구해줄래요.”라며 나뭇잎을 주워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나뭇잎을 줍기 시작하였으며 교사는 비상약품 가방에 들어있는 비닐을 꺼내 영아들이 나뭇잎을 주워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외 나무에 달린 열매, 떨어진 솔방울에도 관심을 보이며 탐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놀이의 과정

- 산책하면서 영아들이 직접 나뭇잎을 주워 놀이하면서 나뭇잎의 모양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나뭇잎의 잎맥을 보고 “여기에 거미줄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작은 나뭇잎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똥 모양이에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또한 커다란 나뭇잎을 주워 머리에 대고 “토끼 귀에요. 깡총깡총”이라며 토끼를 표현해 보며 놀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 교사는 영아들이 주운 나뭇잎을 교실에 가지고 와서 몇 개는 코팅을 해서 제시해주고 나머지는 그대로 제시를 해 주었습니다. 나뭇잎을 미술 재료로 제시해주었는데 나뭇잎 위에 끼적이기를 하거나 나뭇잎을 따라서 그려보는 영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끼적이기를 하다가 나뭇잎 프로타주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영아들은 종이 위에 그려지는 나뭇잎 모양에 흥미를 보이면서 직접 따온 나뭇잎을 골라 색을 칠해보았습니다.
- 영아들이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고 싶다고 하여 다음날 교사는 왕관 머리띠를 만들어 제시해주었습니다. 코팅이 된 나뭇잎을 자유롭게 붙여보며 각자 만의 왕관을 만들어 놀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지원**
  - 영아들이 만들기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충분히 지원해주었으며 충분히 놀이하고 싶은 시간까지 즐겁고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도록 영아들의 놀이를 존중하였다.
- **인적 자원**
  - 영아들이 교사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와주었으며 놀이할 때 영아들의 말을 백트래킹 해주며 공감해주었습니다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교사가 계획한 놀이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놀이는 진행되나 깊이 있게 확장된 놀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영아들이 스스로 놀이를 찾아서 하다 보니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놀이가 이루어졌으며 놀이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사의 변화	▪ 내일은 어떤 활동을 하지? 라는 고민을 하면서 수업 준비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놀이를 할 때에도 내가 계획한 것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커서 조금 주도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 교사 주도적인 모습을 버리고 아이들의 놀이에 집중하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행동을 언어로 표현해주며 상호작용을 해주었습니다.
영유아의 변화	▪ 놀이가 제한적이고 또 교사가 준비한 활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놀이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 어린이집이 재미있다.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었으며 생각지 못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놀이 확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양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행복하나어린이집

18.뽀글뽀글 초록목욕탕 신장개업

연령 만2세

놀이반 소개

- 개성이 많은 영아들의 모인 초록잎새반! 놀이에 흥미를 갖으며 놀이를 확장하며 다양한 놀이를 즐긴다.

놀이의 시작

- 역할놀이에 관심이 많은 영아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제공해 주고자 영아들이 흥미로워하는 인형 목욕시키기를 제공해주었다. 물을 받아 주고 목욕할 때 사용하는 실제 물건(바가지, 때타올, 세수대야 등)들로 준비해주니 더 흥미있는 놀이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놀이의 과정

- 영아들의 관심에 따라 놀이가 확장되어 목욕놀이에서 찜질방으로 찜질방에서 낚시놀이로 낚시놀이에서 물놀이로 확장되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7월 한달 내내 놀이가 이어 질 수 있었고 영아들이 충분히 집중하여 놀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영아들의 놀이를 섬세히 관찰하던 중 영아의 호기심과 흥미를 민감하게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 바로 다음날 놀이가 이어질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등원 원아가 많지 않아 놀이 매트를 한 개 준비해주었는데 놀이재료들이 실제 물건을 사용하다 보니 부피가 있어 자리가 다소 좁다는 생각을 하여 매트 하나를 더 깔아 놀이하는데 좁지 않도록 자리 확보를 해주었다. 영아들은 인형을 들고 때타올로 인형의 몸을 닦이는 모습을 보이고 일부 영아들은 자신의 몸을 씻는 모습을 보인다.

- 목욕놀이에 흥미를 보이는 영아들을 관찰 후 놀이의 매체를 변경해 온 몸으로 놀이 할 수 있는 비닐물을 제공해주었다. 또 물과 다르게 영아들이 매트안으로 들어가 비닐 물을 이용해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목욕탕♨ 그림을 보고 "여기는 찜질방이야?" 하며 말을 한 영아가 엄마와 찜질방에 다녀온 경험 이야기를 한다. "선생님 이렇게 하면 찜질방 되는거에요." 하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는 모습을 보인다. 교사는 영아에게 수건을 이용해 양머리를 해주니 "와~ 찜질방이다." 라고 말을 한다.

- 얼음방과 불가마를 보며 "진짜 찜질방이다." 라고 말하며 "여기는 시원한방이에요?" 라고 말하며 얼음 지퍼팩을 들어 "시원하다~" 라고 말을 한다. 영아들이 손으로 얼음주머니를 만져보고 얼굴에 가져다 시원함을 느낄수 있었다. 종이블럭을 호일로 싸주어 놀이에 제공해준 얼음 블럭으로 높이 높이 쌓아보며 얼음쌓기 놀이하는 모습이다.

  아무래도 여름이라 더워 영아들이 얼음방을 더 좋아했던 것 같다. 일부 영아는 불가마에 들어가 "여기는 뜨거운 곳이에요." 하고 불 그림을 떼보기도 하였다.

- 찜질방 매점이용하기! "선생님 이거 먹고 싶어요? 내가 사줄께요." 하며 구운계란과 준비된 음료를 가져온다. 개인접시를 준비해 주고 스스로 계란을 까 먹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계란에 관심없는 한 영아가 비닐 물속에 장난감 물고기를 넣어 "나는 물고기를 잡는거야." 라고 말을 하고 낚시 놀이를 가져와 낚사하는 모습이다. "물고기 잡으러 산으로갈까요?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갈까요?" 노래를 부르며 낚시놀이를 한다.

놀이의 과정

- 놀이매트를 준비해 물을 받아주고 물고기 놀잇감을 넣어주었다. 물고기 잡기에 바쁜 영아들은 손으로 잡아보고 뜰채로도 물고기를 잡아본다. 한 영아가 물에 들어가고 싶어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모습을 보고 교사는 "△△이 물속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말해준다.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 영아에게 "발만 들어가봐." 라고 말해주니 물속에 들어가 앉아본다. "선생님 물이 차갑지 않고 시원해요." 라고 말하는 영아의 말에 다른 영아들도 물속에 들어가 물놀이를 한다.(물에 들어가 놀 것 같은 영아들을 대비해 미리 여벌옷을 준비함)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지원**
  - 놀이공간을 융통성있게 환경을 구성해주고, 실제의 목욕놀이 용품을 제공해주었다. 영아들이 자발적으로 놀이의 공간배치를하였다.
- **인적 자원**
  - 교사가 직접 목욕탕의 손님이 되어 영아가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영역별 놀잇감을 가지고 특정 영역에서만 놀이한다.	▪ 영역별 놀잇감을 가지고 옮겨 다니며 다른 영역에서 다른 놀이로 확장하며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교사의 변화	▪ 영아들의 놀이 중 문제상황 시 교사가 직접 해결해주려던 (놀잇감을 놀고있는 친구를 보고 다른 영아가 놀이하고 싶다고 말하는 영아) “친구가 이거 놀이하고 싶어하네, △△이가 놀이하고 친구에게 줄수있겠니?” 라고 말하였다.	▪ 영아에게 친구가 놀이하고 싶어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 하며 영아에게 상황을 설명해주고 해결할 수 있는방법을 영아가 직접 생각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해주었다.
영유아의 변화	▪ 오늘은 무슨 놀이해요? 물어보고 교사가 지원해준 놀이만 한다.	▪ 지난 놀이를 지속적으로 놀이하며 놀이의 방법을 다양하게 확장하며 놀이하고 교사에게 말해줌으로써 영아가 놀이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확장해 나간다.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공립가람어린이집

19. 자동차를 굴려요

연령
만3세

놀이반 소개

- 개성이 강한 유아들이 많고 쌓기와 역할, 미술 놀이를 좋아함.

놀이의 시작

- 블록으로 자동차, 트럭을 구성하면서 시작됨.

놀이의 과정

- 블록으로 자동차와 트럭, 캠핑카 등을 구성하여 놀이하고 찻길 테이프로 유아들이 바닥에 길게 붙이며 어느 쪽으로 붙일지 서로 이야기 나누며 이어 붙인다. 어느 정도 붙인 후 가위로 자르고 다른 길을 만들어 이어 붙이며 서로 협의 하에 길을 구성하며 놀이한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교통기관을 블록으로 구성하여 다닐 수 있는 길을 유아들이 만들 수 있는 자료와 재활용품과 상자를 이용해 교통기관 등을 만들어볼 수 있도록 지원.
- **인적 자원**
  - 상호작용 시 문제행동이나 놀이 시 상호작용지원, 보육일지, 관찰일지 지원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친구들이 놀이하는 것에 관심은 보이나 함께 놀이하는 방법에 대해 모르는 모습을 보이는 유아도 보였음.	▪ 여전히 함께 놀이하기 힘들어 하는 유아들이 있지만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만들어 가며 놀이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음.
교사의 변화	▪ 유아들을 전체적으로 보기보다 개성이 강한 유아들에게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었음.	▪ 전체적으로 유아들을 보고 참여하게 됨.
영유아의 변화	▪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쓰고 나 먼저 쓰려고 하는 경향을 많이 보였음.	▪ 친구와 타협하고 협동하는 모습이 관찰될 수 있었음.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공립가람어린이집

20. 팽이놀이

연령
만4,5세

놀이반 소개

- 만 4,5세 혼합연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 만 4세 9명, 만 5세 9명이며 성비는 여아 8명, 남아 10명이다.
- 재활용 만들기 놀이와 점토 놀이에 대체적으로 관심이 높다.
- 혼합반의 영향으로 7세 유아들이 6세 유아들을 잘 이끌며 놀이를 한다.
- 여아, 남아 스스럼 없이 잘 어울려 놀이를 하는 편이다.

놀이의 시작

- 유아들의 놀이 중 몰펀 블럭을 이용해 평면으로 모양을 구성하고 블록을 서로 연결하는 링크를 이용하여 팽이돌림 핀으로 사용한 팽이를 구성하기 시작하면서 놀이가 시작되었다.
- 유아들마다 다양한 모양과 색의 몰펀 팽이가 만들어지고 전시되면서 다른 유아들의 흥미와 관심도 높아졌다.
- 팽이를 돌리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교사의 지원과 유아들의 논의로 인한 변화과정이 진행되고 다양한 팽이 (색종이접기 팽이–블레이드팽이 / 종이컵팽이 / 팽이 펜)도 유아들의 놀이로 인해 만들어지게 되면서 안전하게 즐거운 팽이놀이를 위한 유아들의 약속들도 생겨나게 된다.

놀이의 과정

팽이가 잘 돌아가는 곳이 필요하여 **색 테이프로 영역**을 정한 팽이장

↓

친구들의 다른 놀이의 방해를 줄이고 더 넓은 팽이장을 원하는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형 레고 팽이장**

↓

원형 HD안테나와 전등갓을 이용한 원형 팽이장

• **다양한 팽이의 등장**

몰펀으로 만든 팽이 → 색종이 접기를 통한 색종이 팽이 → 재활용품을 이용해 만든 종이컵 팽이

└ 색종이 팽이접기 책 지원 └ 다양한 재활용품 지원

• **놀이의 변화**

몰펀 팽이를 만들어 팽이돌리기 → 팽이의 크기 정해서 경기하기 → 색종이 접어 팽이 만들기

└ 유아들과 함께 한 팽이장의 고민 및 환경적 물리적 지원 └ 다양한 모양의 색종이 팽이을 위한 책 지원

→ 팽이전시 공간 만들기 → 자신이 원하는 색종이 팽이 골라 놀이하기

└ 투명하게 보이도록 전시공간 구성하여 지원

→ 다양한 재활용품을 이용한 팽이 만들기

└ 재활용품 및 가정연계 요청

→ 팽이 놀이를 위한 약속정하기 → 색종이 팽이와 몰펀 팽이의 대결

→ 펭이 펜놀이 → 경기장에 장애물 구성하여 팽이 돌리기

└ 다양한 팽이의 경험을 위한 지원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연안에 맞춰진 생활주제와 유아들이 관심을 보이는 놀이를 함께 진행하였지만 거의 주로 생활주제의 놀이가 대부분을 차지한 편임	▪ 유아들이 흥미에 따른 놀이와 확장과 새로운 놀이를 시도하고 만들려 하는 시도가 보임
교사의 변화	▪ 유아들의 흥미에 맞춘 교사의 상호작용과 지원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감이 충분하지 못했음	▪ 스스로의 유아에 대한 인식과 놀이 속 관찰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됨
영유아의 변화	▪ 놀이 속 유아들간의 문제상황이나 갈등 해결등에 대한 교사의 개입이 많았고 그로 인한 약속이나 규칙도 유아들이 정하긴 했지만 처음 제안은 교사가 거의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음	▪ 유아들이 스스로 놀이를 주도하고 선택하면서 유아의 스스로의 역량과 능력을 보여주며 친구들을 배려하고 놀이 속 약속이나 규칙 등을 만들어 지키려는 노력이 보임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대방빛가람어린이집

21. 색으로 놀이하자!

연령
만3세

놀이반 소개

- 남아들은 대체로 신체놀이나 작은 블록을 이용해 구성물을 만드는 것에 흥미가 많고, 여아들은 큰 블록을 이용해 공간을 구성하여 그 안에서 역할놀이(엄마아빠놀이, 가게놀이)를 하거나 미술활동에 관심이 많은 편이다.
- 남아 9명, 여아 6명 총 15명 정원으로 성비는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놀이의 시작

- 바깥놀이 시간에 바깥을 산책하며 가을이 되어 변화한 나뭇잎의 색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며 유아들은 '초록색이랑 빨간색이랑 조금 섞였어요!', '노란색 조금 빨간색 조금이라 주황색이 됐어요!'하며 색에 대한 관심으로 확장되었다.

놀이의 과정

- 교사의 계획된 주제는 '가을'이었지만 유아들이 바깥놀이를 할 때 색에 관심이 많아 유아의 흥미에 따라 '색'으로 주제를 변경하였다. 이후 유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색으로 어떻게 놀이할까?", "색을 어떤 방법으로 섞어볼까?"라고 발문하자 유아들은 "물감으로 색을 섞어봐요!", "우리가 좋아하는 클레이에 색깔을 입힐래요!"하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교사는 유아들의 의견을 수렴해 물감과 클레이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색에 대한 흥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는 배움공동체 회의를 통해 '색깔을 훔치는 마녀' 책을 추천받고 제공해주었다.
- 유아들은 동화를 감상하며 "진짜 여러 색깔을 섞으면 검정색이 돼요?"라고 궁금증을 표현하였고 직접 유아들이 좋아하는 물감놀이를 통해 색을 섞어보고 궁금증을 해결해볼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붓에 묻어있는 물감을 물통에 씻으며 변화하는 물 색깔에도 관심을 보여 교사와 함께 물에 물감을 풀고 스포이드, 우유병을 제공해 유아들이 직접 색깔물을 섞어보며 색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하지만 유아가 직접 물감 양을 조절하니 색깔물의 색이 탁하고 우유병이 커서 예상보다 많은 양의 물감이 들어가며 유아들이 원하던 색이 잘 나오지 않았다.

- 이에 교사는 물감 양을 교사가 조절하고 우유병 대신 유아들이 사용하는 약병을 제공해주었다. 유아들은 자신만의 색깔을 만든다는 것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색깔의 이름을 지어보기도 하였다.

- 또 색깔물을 만들어 한 곳에 모아두자 유아들이 스스로 비슷한 색끼리 배열하고 비슷한 색끼리 비교하며 "이 색은 좀 더 어둡고 이 색은 좀 더 밝아요!", "이 색은 진하고 이 색은 좀 더 연해요!" 라고 이야기하였다. 이는 유아가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명도와 채도를 이해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유아들은 바깥놀이터에서 뛰어놀며 자연물의 색을 찾고(건강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자신이 선택한 색으로 나만의 색을 만들고(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색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며(감성이 풍부한 사람) 즐겁게 놀이하며 배울 수 있었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지원**
  – 교실 안에서의 교구장들을 모두 벽에 붙여 유아들이 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
- **인적 자원**
  – 어린이집 일지 작성법, 놀이에 대한 상호작용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 사용 안내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교사가 생각하는 주제와 관계 없이 유아들이 각자 좋아하는 주제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 유아들의 흥미를 따라 놀이를 지원하니 유아들의 놀이 참여도가 높아졌다.
교사의 변화	▪ 어린이집이 처음이라 의문점이 많았다.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했다.	▪ 어린이집 일지 작성법과 전반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다. ▪ 좀 더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는 말을 알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영유아의 변화	▪ 놀이 공간을 나누어놓아 유아들이 놀이할 때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 교구장들을 모두 벽에 붙여 유아들이 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놀이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갈등이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공립대방빛가람어린이집

22. 가을풍경

연령
만4세

놀이반 소개

- 늘빛반 가을 풍경과 열매

놀이의 시작

- 가을 열매를 이어서 산책을 통해서 가을에 관련된 것을 교실로 가지고 와서 놀이를 시작

놀이의 과정

- 누리 보따리 교구 지원과 산책을 통해 가지고 온 실물자료를 코팅으로 제공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교실과 실외시간을 더불어 이동을 할 때에도 이야기하는 시간은 더불어 안에서 놀이지원, 실물자료를 제공하고, 직접 맛볼 수 있도록 하였음.
- **인적 자원**
  - 보육일지, 관찰일지 컨설팅, 배움놀이터를 통해서 원장님과 교사들과 이야기를 하고, 원장님께서 물품을 구매해주셔서 유아들과 함께 놀이를 진행하였음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교실과 실외시간 그 시간만 놀이를 하였음	▪ 교실과 실외시간을 더불어 이동을 할 때에도 이야기하는 시간은 더불어 안에서 놀이를 한 것이 밖으로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음을 깨달음
교사의 변화	▪ 모든 유아들에게 반응을 다 하였으며,유아가 요구하면 지원을 하였음	▪ 말로 하는 반응뿐만 아니라 손짓, 표정으로도 반응할 수 있도록 변화되었다.
영유아의 변화	▪ 확장보다는 흥미놀이로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음	▪ 처음보는 선생님께서 오셔서 유아들의 놀이에 반응을 하시고 확장하는 시간이 많아짐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공립은행어린이집

23. 가을 숲으로 놀러와요

연령
만3세

놀이반 소개

- 저희 반 유아들은 종이블록을 이용해 무언가를 구성하여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는 것을 선호하며 지속적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역할놀이를 즐겨하며 2학기가 되어 엄마, 아빠와 같이 역할을 정하여 극 놀이를 하고 그리기, 꾸미기, 만들기 등과 같은 미술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놀이합니다.

놀이의 시작

- 유아들이 교사가 종이블록에 붙여준 가을나무(단풍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밤나무)와 허수아비의 그림자료에 관심을 보이며 놀이가 시작되었습니다.

놀이의 과정

- 유아들이 가을 숲을 구성하여 놀이할 수 있도록 가을나무와 허수아비의 그림자료가 붙여진 종이블록을 지원해주었다. 유아들은 교사가 지원해 준 놀잇감을 탐색하고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달라진 놀잇감에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유아들은 “이건 무슨 나무에요?”라고 물어보았고, 교사는 가을나무의 이름을 유아들에게 알려주었다. 한 유아는 단풍잎을 보고 “불가사리처럼 생겼어요.”라고 말하였다. 또, 한 유아는 허수아비의 그림을 보고 신체를 이용해 허수아비를 따라하는 모습을 보였고, 허수아비 아저씨 노래를 부르는 유아도 있었다. 교사는 제공해 준 가을나무 종이블록을 이용해 가을 숲을 구성하여 놀이를 할 때 ‘허수아비 아저씨’ 노래를 틀어주었다.

- 유아들은 가을나무 종이블록을 이용해 교실을 공간을 넓게 활용하여 가을 숲을 구성하였다. 처음에는 동물블록들을 이용해 가을 숲 안에 동물들의 집을 구성하여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 교사는 유아들의 작품으로 각 유아의 얼굴을 붙여 나뭇잎 왕관을 만들어 제공해주었다. 한 유아는 나뭇잎 왕관을 쓰고 “저 다람쥐에요.”라고 말하였고, 교사는 “다람쥐에요? △△이 다람쥐다~”라고 말하였다. 다른 유아도 나뭇잎 왕관을 쓰고 “저도 다람쥐에요.”라고 말하며 나뭇잎 왕관을 쓴 유아들이 구성된 가을 숲 안에서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놀이의 과정

- 한 유아는 나뭇잎 왕관을 쓰면 다람쥐가 되고, 나뭇잎 왕관을 벗으면 사람으로 변한다고 정하여 가을 숲 안에서 놀이하였다. 놀이 중, 유아들이 다람쥐 먹이에 관심을 갖고 나뭇잎 왕관을 쓴 유아에게 다른 놀잇감인 밤과 도토리를 가지고 와서 먹이를 주고, 먹이를 먹는 시늉을 하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 한 유아가 소프트 블록으로 전화기를 만들어 놀이하자, 다른 유아도 블록으로 전화기를 만들어 서로 통화를 하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모습을 관찰한 교사는 놀이참여자로 참여하여 "선생님도 너희들이랑 전화하고 싶어!"라고 말하자, 유아는 "제가 블록으로 만들어줄까요?"라고 말하였다. 교사는 "선생님은 종이에 그려서 전화기를 만들어볼게!"라고 말하였다. 유아들은 교사가 종이로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전화기에 관심을 갖고 "저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림을 못 그려요."라고 말하였다. 교사는 "○○이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것을 도와줄까?~ 그러면 색칠해서 꾸며줄 수 있겠니?"라고 말하였다. 전화기 만들기를 희망하는 유아들은 교사가 그려주는 전화기 그림 종이를 받아서 색칠하여 꾸며주고 가위로 오렸다. 교사는 "선생님은 전화기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어!"라고 말하고 종이 뒤에 우드락을 붙였다. 유아들은 "저도 붙여주세요."라고 말하여 교사는 유아들의 전화기 뒤에 우드락을 붙여서 제공해주었다.

- 유아들이 전화기를 이용해 가을 숲 안에서도 서로 전화통화를 하고, 사진을 찍는 등의 놀이 모습을 보였다. 또, 몇 몇의 유아는 교사의 도움없이 스스로 종이에 전화기를 그려보며 원래 가지고 있던 전화기 뒤에 새로운 전화기를 붙여서 "나는 이제 전화기가 2개야"라고 말하고 놀이를 하였다.

- '가을 숲에 놀러와요' 놀이가 지속이 되면서 유아들이 가을나무가 붙여진 종이블록을 이용해 가을 숲을 구성하였다. 가을 숲을 구성한 유아가 교사에게 '문'과 '벨'이라는 글자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유아는 교사가 적어준 '문'과 '벨'이라는 글자를 꾸미고 오려서 테이프를 이용해 '문'이라는 글자는 종이블록에, '벨'이라는 글자는 그 종이블록 앞에 붙여두었다. 유아는 다른 유아들에게 "우리 여기를 문이라고 하자, 여기에 들어오고 싶으면 여기에 있는 벨을 누르고 들어와!"라고 말하였다. 교사는 놀이참여자로 바닥에 붙여진 벨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딩동! 딩동! 선생님 왔어요~"라고 말하였다. 안에 있는 유아가 종이블록을 이동하며 문을 열어주었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유아들도 벨을 손가락으로 눌러서 가을 숲 안으로 들어오며 '가을 숲에 놀러와요' 놀이가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 또 다른 유아들은 다른 놀이 공간에서 상을 차리며 가게 놀이를 진행하였다. 가게에서 놀이를 진행하는 유아는 전화기를 이용해 교사에게 가게에 놀러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교사는 유아의 가게에 놀러가서 밥을 먹고 "얼마에요?"라고 말하였다. 유아는 "3만원이에요."라고 말하였다. 교사는 유아에게 천원짜리 가짜지폐 5장을 보여주며 "3만원이요? 저는 5천원 밖에 없어요."라고 말하였다. 유아는 "2개만 주세요."라고 말하였다.

- 천원짜리 가짜지폐를 받은 유아는 “선생님, 저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천원, 이천원~ 이천원이에요.”라고 말하였다. 유아들은 천원짜리 가짜지폐에 관심을 갖고 나누어 가지며 천원짜리 가짜지폐를 이용한 놀이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다.
- 유아들은 교실의 공간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전화기를 이용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음식가게와 가을 숲을 자유롭게 이동하며 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지원**
  - 교실 안에 놀이 공간의 제약을 없애고 다양한 공간에서 놀이할 수 있음 안내 유아들은 다양한 공간을 활용 지원
- **인적 자원**
  -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컨설턴트 지원, 관찰하는 방법과 놀이 지원 및 놀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상호작용 안내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유아들이 자신의 흥미에 따라 스스로 놀이를 선택하여 놀이하는 모습을 보이나, 넓은 공간에 비해서 한정적인 공간에서만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놀이 공간의 제약을 없애고 다양한 공간에서 놀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유아들은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사의 변화	▪ 유아들의 놀이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였으나, 상호작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놀이가 교사의 주도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상호작용과 관련된 부분에서 컨설턴트께 도움을 받고 유아들의 놀이를 충분히 관찰하고 놀이참여자로서 유아들의 반응을 따라해 주면서 상호작용해주자, 유아들이 놀이를 더 즐거워하고 놀이가 활성화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유아의 변화	▪ 친구들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구조화된 놀이에만 관심을 갖고 놀이하는 유아도 있었습니다.	▪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놀이에 관심을 보이는 유아도 생기고, 유아가 놀이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놀이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정부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공립은행어린이집

24. 가을 자연물로 놀이하자

연령 만4세

놀이반 소개

- 레고블록으로 구성놀이를 즐기는 유아들이 많고 한 유아가 발견하면 모방하는 유아들이 많음.

놀이의 시작

- 등·하원 시 떨어진 낙엽과 바깥놀이를 할 때 가을이 되어 볼 수 있는 자연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림으로 표현하고 놀이를 시작하게 됨.

놀이의 과정

- “선생님 오늘 어린이집 올 때 초록색 은행잎이 떨어져 있는 거 봤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가을 자연물에 관심을 가지는 유아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미술영역에서 가을 자연물을 그리며 놀이하는 유아의 모습을 보고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종이를 제공해주었다. 이후 바깥놀이를 할 때 유아들이 낙엽을 가득 모아서 낙엽을 밟으며 낙엽 소리를 듣고 만져보기도 하며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낙엽을 줍던 유아가 “선생님 우리 여기에 낙엽을 잔뜩 넣어서 발판을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여 지퍼백에 낙엽을 함께 모았고 발판을 만들었다. 어디에 발판을 만들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했더니 문 앞에 놓자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문 앞에 발판을 두었고 발판을 밟아보며 즐기는 유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다음 날 놀이를 하던 유아들이 가을과 관련된 그림책과 바깥놀이를 나갔을 때 주워온 낙엽을 보며 “친구들이랑 가을 모습을 표현하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여 의견을 듣고 아스테이지를 제공해주었다. 미술도구를 이용하여 은행나무, 단풍나무를 그려보았다. “예쁜 꽃잎 가을 이야기라고 제목을 지어서 전시하면 좋을 거 같아요.”라고 이야기하여 전시를 해주었는데 또 다른 유아들이 “우리 여기에 낙엽도 붙이고 종이도 붙이면서 꾸미면 더 멋있겠어요.”라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른 유아들도 더 꾸미고 싶다고 하여 습자지, 꾸밀 수 있는 스티커, 바깥 놀이를 할 때 주워온 낙엽 등 다양한 미술재료를 지원해주었다.
- 어제에 이어서 지원해준 미술재료로 아스테이지에 다양한 가을 풍경을 표현하던 유아들이 이번에는 역할영역에서 가을 나들이 놀이를 하고 싶어 했고 폐품 중 은박지를 발견하여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여기에 가을 모습을 그려서 돗자리로 사용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라고 제안했고 친구들과 함께 매직으로 가을풍경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 폐품으로 만든 가을풍경 돗자리로 가을 나들이 놀이를 즐길 수 있었다. 가을나들이 놀이를 하던 유아가 습자지를 구겨서 “이거는 은행잎 부침개야.”라고 이야기 하며 음식 만드는 놀이로 전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바깥놀이를 할 때 주워온 자연물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을 소풍 가면 재밌겠네.”라고 유아들의 놀이를 격려하기도 하였다. 나뭇잎을 으깨서 “이렇게 하면 가루로 만들어지지.”라고 하며 나뭇잎을 바스러지게 하며 가루로 만들어보며 “도토리 색깔이랑 비슷하네.”라고 이야기하며 가을 열매에 관심을 갖는 모습도 보였고 “정말 도토리 색깔이랑 비슷하구나. 또 맛있는 가을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 하니 “감이랑 사과로 샐러드 만들어요.”라고 이야기하며 가을열매에 관심을 갖는 유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다양한 가을 열매와 관련된 책을 제공해주기도 하였다.
- 어제에 이어서 가을의 자연물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놀이하던 유아들이 제공해준 가을 열매 그림책을 보고 다양한 가을 열매, 곡식을 발견하고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고구마를 함께 관찰하고 싶어서 집에서 가지고 온 유아도 있어서 소개하고 과학영역에서 관찰해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었다. 경기도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에서 제공해준 다양한 콩과 플라스틱 병으로 마라카스를 유아들이 만들어보고 악기연주를 하며 즐겼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지원**

– 유아들이 놀이할 때 불필요한 책상을 옮겨 공간구성에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음을 컨설팅

- **인적 자원**

–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발견하는 것, 놀이 안에서의 유아들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지원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컨설팅 이전에는 유아들이 레고블록과 메가빌드로 구성하는 놀이를 즐겨하고 친구의 구성물을 모방하는 놀이가 주로 관찰되었고 한 가지 놀이를 반복적으로 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다.	▪ 컨설팅 이후 가을 환경에 관심을 갖고 가을 자연물을 이용한 놀이로 표현될 수 있었다. 또한 레고블록 놀이를 할 때 가을이 표현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교사의 변화	▪ 컨설팅 이전에는 유아들이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유아들이 놀이를 할 때 “다른 놀이도 해보자.”라고 이야기 하는 등 제안을 많이 하였다.	▪ 컨설팅 이후 관찰을 하며 유아들이 놀이할 때 필요한 것을 파악했고 필요한 경우 공동 놀이자로 참여하였다. 또한 유아들이 제안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영유아의 변화	▪ 컨설팅 전에는 미술재료를 사용하거나 “선생님 이거 다했으니까 놀아도 되나요?” 라고 놀이를 하기 전 묻는 유아들이 많았다.	▪ 컨설팅 이후 미술재료를 어떻게 사용할지 유아들이 정하고 자발적으로 놀이를 제안하고 흥미있는 것을 발견하여 놀이로 표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승진어린이집

25. 종이접기 놀이

연령
만4세

놀이반 소개

-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이고 미술영역에서 놀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놀이의 시작

- 미술영역에서 종이접기를 하는 유아들이 종이접기 책에 있는 메뚜기를 접으며 메뚜기 접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메뚜기 접기가 어렵다고 하여 교사가 개입하게 되었음. 메뚜기 접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면서 상호작용을 함

놀이의 과정

- 유아들이 비치된 종이접기 책을 보면서 만들고 싶은 것을 탐색하고 메뚜기를 만들려고 했지만 접는 방법을 어려워했음. 교사가 개입하여 메뚜기를 접는 방법을 모델링해주고 접어 볼 수 있도록 안내 함. 교사의 모델링과 종이접기 책을 보며 유아 스스로 메뚜기를 접게 되었고 이를 다른 유아들에게 자랑하자 다른 유아들도 종이접기를 하기 위해 미술영역으로 모여 들었음. 종이접기를 어려워했던 유아가 다른 유아들에게 방법을 안내하였음. 많은 유아들이 종이접기를 하게 되어 책상을 더 붙여서 넓혀주고 색종이를 추가로 비치하였음.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종이접기 책과 색종이를 더 많이 준비해주었고, 미술영역의 책상을 더 붙여 활동 공간을 넓혀 주었음

- **인적 자원**

– 유아가 종이접기 놀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모델링이 되어줌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유아들의 성향과 비슷하게 조용한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교사의 지원을 통해 놀이가 지속될 수 있었음
교사의 변화	▪ 유아들이 안정적으로 놀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음	▪ 유아들의 놀이 상황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고 유아들이 원하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되었음 ▪ 적절한 모델링을 통하여 유아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되었음
영유아의 변화	▪ 의사표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음	▪ 종이접기를 성공하고 다른 유아들에게 접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다른 종이접기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음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아이파크어린이집

26. 카페놀이를 해요

연령
만2세

놀이반 소개

-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동놀이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놀이의 시작

- 역할영역에서 빵과 쿠키 등을 만드는 놀이를 준비해 주었는데 빵을 만드는 놀이와 함께 부모님을 따라 카페에 다녀온 경험이 있는 영아가 커피나 음료를 주문하고 마카롱 등을 주문하면서 카페 놀이로 확장되었다.

놀이의 과정

- 색깔 물병과 종이컵, 쿠키, 빵 모양을 제공하여 카페놀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카페에서 음료,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손님의 역할을 나누어 놀이를 했고 교실에 비치된 인형을 손님으로 이용하자는 영아들의 의견을 듣고 손님을 추가하면서 놀이가 더욱 확장되었다. 다 먹은 컵과 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방법에서 분리수거 통에 넣겠다는 영아가 있어서 다 먹은 음식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분리수거 통을 비치해주었다.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놀이에 필요한 활동자료인 색깔 물병과 종이컵, 음식모형, 분리수거통을 제공하였다
  - 모든 아이들이 참여하여 영역 구분을 하지 않고 넓은 공간에서 놀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 **인적 자원**
  - 영아들의 놀이에 참여 하여 놀이를 지원하고 놀이 상대가 되어 주었다.
  - 영아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카페를 이용한 후 발생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이의 확장을 도왔다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교사가 계획하고 비치한 놀잇감을 이용하여 놀이에 참여하며 놀이를 하였음	▪ 교사의 물적, 인적 지원을 통해 놀이가 확장되었음
교사의 변화	▪ 영아들의 놀이에 참여하여 놀이를 하고 지원을 해주었지만 놀이 참여자의 역할에 더 몰두했었음	▪ 영아들에게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었고 영아들의 이야기를 더욱 귀담아 듣게 되었음
영유아의 변화	▪ 놀이에 잘 참여하였지만 교사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음	▪ 적극적인 참여와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물체를 형상화 하여 놀이가 진행되었음. 다른 영역의 판 게임을 마카롱이라고 형상화하기도 함

포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예그린어린이집

27. 커피를 만들어요

연령
만3~5세

놀이반 소개

- 역할 놀이, 쌓기 놀이, 미술 놀이에 관심을 보이며 만 3세~만 5세가 다양하게 있어 다양한 발달 상황을 보입니다.

놀이의 시작

- 유아가 미술 영역에 있는 재료들을 살펴보다 마음에 드는 재료 하나를 선택하여 놀이 시작

놀이의 과정

- 처음에 요플레 컵에 주황색 색종이를 잘게 오려 넣은 후 색종이로 뚜껑을 만들어 덮으려고 함. 무엇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니 커피를 만드는 것이라고 함. 유아의 이야기를 듣고 미술영역 재활용품 중 플라스틱 커피 병을 제공해주었더니 오렸던 색종이를 커피 병에 넣어 커피를 만들고 역할 영역에서 가을 소풍 놀이를 하는 유아들과 함께 놀이를 시작함

교사의 지원

- **물리적 자원**
  - 놀이에 필요한 자료 제공(재활용품)
- **인적 자원**
  - 유아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놀이에 필요한 것을 묻고 놀이를 인정해 줌

참여 소감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놀이의 변화	▪ 어떤 놀이를 해야 할지 놀이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배회하는 유아들이 있어 교사가 놀이 상대가 되어 주었음	▪ 영역에 국한되어 놀이를 했었는데 영역간의 연계연계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었음
교사의 변화	▪ 놀이 상대가 되어 주고 놀이에 관심을 가졌지만 적절한 놀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유아들이 놀이에 필요한 것을 묻거나 관찰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지원해 주게 되었음
영유아의 변화	▪ 다양한 연령이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또래끼리의 놀이 보다는 혼자서 놀이를 하는 경향이 있었음	▪ 놀이와 놀이를 연계하고 응용하여 놀이를 할 수 있게 되었음

PART

3

참여후기

컨설턴트 참여후기 93
보육교직원의 참여후기 103

컨설턴트 참여후기

권수진 컨설턴트

컨설턴트로서 놀이학습공동체 모임을 주관하며 선생님들과 세 번의 모임을 가지며 긍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다. 놀이학습공동체 모임을 가지기 전에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야 할 지 고민이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임에서는 놀이학습공동체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다소 부담감을 가지며 모임에 참여 했던 선생님들이 놀이를 실행하면서 경험하는 고민에 대해서 동료교원들과 서로 이야기 나누며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자 놀이학습공동체의 취지에 공감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지난 모임의 미션이였던 '영유아의 놀이에 주의를 기울여 관찰한 후, 영유아가 흥미를 보이는 놀이의 시작점 찾아보기'의 경험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은 놀이의 시작을 찾는 것이 의외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영유아를 집중해서 관찰하며 바라본 결과 이들이 어디에 흥미를 보이고 어디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어쩌면 우리는 교사중심인 교사의 의도에 의한 놀이를 진행하지 않았었나하는 반성의 이야기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모임에서는 영유아관찰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회상시켜 주게 되는 시간이었다.

세 번째 모임에서는 놀이 흐름에 따른 교사의 지원에 대한 경험담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았다. 영유아의 놀이에 대한 교사의 지원은 물리적 지원(시간, 공간, 자료)과 교사의 상호작용 지원 등 다양한 경험담을 공유하였다. 특히, 교사의 상호작용 지원에서는 교사가 영유아의 '놀이 상대자'가 되어 놀이에 적절히 개입하면서 교사도 즐거운 놀이시간이었다는 경험담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번 놀이학습공동체모임을 가지며 선생님들의 가장 큰 변화는 놀이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선생님들은 그동안 자칫 교사 주도로 놀이를 이끈 것은 아닌 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다. 또한 선생님들은 관찰을 통해 놀이가 시작되는 영유아의 흥미점이나 관심 및 요구도를 찾아내고 놀이의 흐름에 따라 적절한 교사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다짐들도 있었다.

컨설턴트로서 선생님들과 함께 하며 영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강조하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영유아의 놀이를 읽어내고 지원할 수 있는 교사역할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고,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놀이학습공동체 모임을 통해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의 기틀을 다진 것 같아 보람되었다. 또한 교사는 영유아와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배움을 지원할 수 있는 보육과정의 주체이자 영유아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매우 중요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다.

김승옥 컨설턴트

원장대상 놀이학습공동체는 원장님의 요구를 반영하여 놀이학습공동체 주제 정하기, 주제에 대한 전문적 내용 익히기, 각자의 생각과 경험나누기, 현장적용하기, 적용한 사례 나누기, Q&A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2020년부터 적용되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핵심인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이 무엇인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 보육과정, 영유아의 주도성, 즐거움, 자유를 보장하는 놀이의 의미, 놀이에서 배움 찾기, 놀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방법 등을 익히면서 나는 놀이학습공동체에 참여하시는 원장님들이 온전히 이 시간에 집중하시도록 귀찮으리만큼 수많은 질문을 드렸다. 원장님들은 질문 하나 하나에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궁금한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을 찾으셨다.

보육교사의 질문을 수렴하여 모임시간에 나누기도 하고,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관찰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눈을 반짝이시며 소감을 나누기도 하였다. 바쁜 보육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현장에서 적용하시기도 어려우실텐데 어찌나 열의가 뜨겁던지 멘토인 나도 모임에 참여 하면서 함께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원장님의 열의에 감동받는 시간이었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 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곳이다.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총 책임자로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 보육교사가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해도 원장이 변화되거나 공감하지 않으면 보육현장에서 그 효과는 매우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원장은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어린이집의 철학이 보육과정에 잘 발현되도록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원장대상 놀이학습공동체에 참여하신 모든 원장님의 어린이집은 진정한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의 보육과정이 현장에서 실천되지 않을까라는 바람과 그 곳에서 생활하는 영유아들은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컨설턴트 참여후기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놀이학습공동체 원장님들 응원합니다!

김영화 컨설턴트

지난해 첫 번째 놀이ing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놀이학습공동체에 참여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다양한 주제를 정리해 보았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주제를 어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평가제 지표를 근거한 보육과정 이해편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을 우선 풀어보고 그에 따른 실천지표 평가제지표를 재해석해 보는 시간을 공유해 보았다.

우선 배경을 살피고자 거시적 관점에서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해 회원국가들이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자율적 놀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는 지금 우리나라도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벌써 두 번째 아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어디서든 차별받지 않고 최우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국가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2019 개정 누리과정과 제4차 표준보육과정을 마련 하고 실천하기 위해 어린이집평가제를 지표로 전국 어린이집에서 운영되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세히 어린이집 현장을 들여다 보면 하루하루 아이들은 일상생활속에서 많은 경험 즉, 놀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쌓아가고 있으며 무한한 사회적 유능감을 발현하고 있다. 놀이를 계획하여 지원하는 것 보다는 아이들의 자율적 호기심속에서 발현되는 행동과 사건들이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기초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놀이속에서 하나의 작은 발견이 단을 쌓아 올리듯 차곡차곡 쌓아올리다 보면 아이들은 비로서 자신의 유능감과 더불어 자존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어른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행복감이 완성될 수 있을거라 기대해 본다.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고 공감해 주는 성인의 보호가 함께 이루어 진다면 말이다. 마치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이론처럼 아동을 중심으로 둘러싼 모든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특히 이웃, 학교, 지역사회환경을 볼 때 어린이집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아울러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운영자인 원장님은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판과도 같기에 최고 결정자인 원장님의 연구모임 주제로 제도적 접근을 진행하였다. 운영자로서 나아갈 방향을 각 어린이집 특성에 따라 보육철학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환경을 기대하며 3회기의 놀이학습공동체를 통해 보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해 보았다.

진행되는 회기동안 다소 부족함에도 마지막까지 모두 참여해주시고 나누어 주셔서 감사의 마음에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할 수 있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과 짧은 회기로 진행되어 현장에서 실천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함께 나누지 못해 멘토로서 아쉬웠으나 원장님들께서 다음 세대를 위한 무궁무진한 열정을 기대해 보며 함께 나누어 주신 연천군 원장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컨설턴트 참여후기

셀프모니터링의 효과

민혜자 컨설턴트

이번 놀이학습공동체를 진행하면서 먼저 소모임을 통한 제4차 표준보육과정 강의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향한 세계적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기존의 사고를 갖고 있는 경력 교사들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을 현장에서 상호작용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강의 이후 영아와의 상호작용을 직접 관찰하기 위한 방문 컨설팅 일정을 잡았으나 갑자기 코로나19가 4단계로 격상되면서 영상을 통한 모니터링으로 전환되었다.

처음으로 시행된 상호작용 영상 모니터링이 낯설기도 했지만 방문 컨설팅과는 달리 교사들의 영상을 몇 번이나 되돌려 보면서 상호작용을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했다. 교사들은 영상을 찍으면서 녹화가 잘 안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 몇 번 씩 찍어야 하는 시행착오도 겪고, 제출을 위해 본인의 영상을 셀프 모니터링 하면서 반성적 사고를 하게 되고 스스로 본인의 상호작용을 보면서 직접 느끼게 되니 행동 수정의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졌다.

1차 제출한 영상으로 교사와 1:1 ZOOM 컨설팅을 하면서 함께 영상을 보며 영상 전 후의 맥락을 이야기 나누고 본인의 장면을 하나하나 보면서 피드백 해주고 수정할 점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니 더욱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이후 2차 소모임으로 한 번 더 상호작용을 해 본 상황에서 영아 상호작용법에 대한 자세한 강의가 ZOOM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어서 2차 영상 모니터링이 진행되었다. 1차 때의 경험으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영상을 찍어 보내왔고, 1차 때의 셀프모니터링과 피드백을 통해 좀 더 나은 상호작용을 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교사들의 상호작용에 많은 변화된 모습이 보여졌다. 2차 1:1 ZOOM 컨설팅에서는 몇 번의 만남으로 교사와 라포가 형성되어서인지 1차 때보다 훨씬 자연 스럽게 이야기가 오고갔으며 영아중심 놀이 중심의 상호작용을 통해 영아들의 모습이 밝아졌고 영아들의 놀이가 활성화 되었으며 교사의 개입 없이도 영아들이 놀이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교사들의 피드백이 이어졌다. 덕분에 놀이학습공동체의 긴 여정에 보람을 느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대체된 영상 모니터링이었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반성적 사고가 중요하고 스스로 직접 느껴보는 셀프 모니터링이 자신의 상호작용을 가장 잘 변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기회가 되었다.

컨설턴트 참여후기

놀이를 통해 삶의 주인이 되는 아이들

박미경 컨설턴트

코로나19와 함께 제4차 표준보육과정의 개정 이후 영유아중심 놀이중심의 보육과정에 대한 현장에서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그동안 잘하고 있었음에도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육이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하지 못했기에 현장은 더 혼란스러웠던 것 같다. 그러기에 2021년 놀이학습공동체 보육과정컨설팅은 현장에 있는 보육인으로써 한 줄기 빛과 같은 시간이었다.

평소에도 일과 속에서 아이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아이의 욕구와 감정을 충족하기 위해 좋은 경험을 충분히 지원했음에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과 부족한 부분에 대한 방향성 제시와 잘하면 잘한다고 토닥여주고 부족한 건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지 조언해주고, 오늘도 현장에서는 이로운 경험과 의미를 주기 위해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며 교육적 의미를 찾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반성하고 긍정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일과 후에 놀이의 양상과 지원내용에 대한 반응과 놀이의 변화를 기록하여 지원 방향을 정하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놀이를 통한 배움 속에서 아이들이 어린이집 오는 것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무일 것이다.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고 성장하는지 교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일이야 말로 즐거운 배움을 구현하는 최고의 교수학습방법이라고 한다

다양한 놀이를 통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들은 미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의 꿈나무로 행복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동참할 수 있어서 센터에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손윤희 컨설턴트

1. 선생님의 첫 걸음 관찰!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에 어려움과 모호함을 갖고 있는 유아교사들에게 좋은 실천적 예시가 되고 더 나은 놀이지원을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스스로 개선점을 찾아가고 적용해 보려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교사의 철저한 사전계획보다는 유아의 흥미로운 놀이 하는 것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그 놀이를 가만히 따라가다보면 분명 지원 할 것이 눈에 보이고 그 안에서 배움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반성적 사고를 이야기하는 선생님들의 첫걸음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2. 선생님의 두 번째 걸음 함께!

교사는 놀이를 통해 꼭 무엇인가 가르쳐주고 얻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과 연결되었고, 주제에 맞추어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과 교사는 계획한 놀이에 유아들이 반드시 참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각 영역마다 놀이 활동과 활동지 등을 미리 준비하고, 주제가 종료되기 전에 모든 아이들이 주어진 놀이와 활동지를 완성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는 모임을 통해 놀이를 소개하고 이야기해보면서 함께 같이 만들어 가는 과정이 지금의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3. 선생님의 세 번째 걸음 신념!

컨설턴트가 놀이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선생님들은 상호작용과 놀아주려는 시도하기가 무척 바쁘다. 누군가가 관찰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한 선생님도 있었다. 그 안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교사의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나는 동화책은 꼭 직접 읽어준다”, “나는 매일 20명의 아이들 꼭 한 번씩은 안아준다” 등

거창하지 않아도 변함없이 실천하고 내 마음 속 깊이 교사로서 실천하고자 하는 것 하나씩을 마음에 담아두면 유아들의 놀이에 조금 더 관심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놀이 중심 보육과정은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교사의 전문성이 중요하다. 전문성이 신념까지 담긴 전문성이면 분명 선생님들로 인해 행복해하는 아이들이 많아질 것이다.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하루하루 달라지고 노력하는 선생님들로 인해 눈앞에서 놀이가 배움으로 이어지는 놀이를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컨설턴트 참여후기

이연미 컨설턴트

선생님에게 '교실은 누구의 것일까요?'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교실에서 즐거움과 배움을 느끼고 잘 놀고 있는 주체가 누구인지와 **개정된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의 영유아중심, 놀이중심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시간으로 놀이학습공동체를 시작**하였다.

선생님은 놀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정말 놀기만 하면 될까?', '모든 영역을 다 경험해야 아이들이 잘 발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였으나 진행될수록 참여한 선생님의 생각이 달라지면서 계획이 중요했던, 그래서 흥미영역별 실행과 평가가 중요한 **기존의 보육과정이 점차 영유아의 놀이흐름을 따라 가면서 '이번에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아이들의 놀이가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될까?'라는 고민과 궁금증으로 바뀌는 것을 지켜 볼 수 있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힘든 숙제처럼 다가왔던 보육일지와 계획들이 오늘은 아이들과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지와 함께했던 즐거운 놀이에 대한 기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놀이의 시작을 위해 교사가 융통성을 가지고 영유아에게 교실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놀이흐름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한걸음 뒤에서 지켜보는 관찰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완벽하게 교사가 계획한 의도대로 한 놀이와 영유아가 시작한 놀이를 지켜보면서 어떤 놀이가 더 의미 있는 진행되는지를 비교해 보면서 선생님의 마인드가 달라지면서 놀이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영유아의 입장에서 놀이지원을 할 수 있는 계기될 수 있었다.

선생님의 처음 시작은 개정된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서류와 개정된 내용을 보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놀이 중심의 궁금증으로 시작한 놀이학습공동체가 3차시라는 짧은 기간의 아쉬움과 영유아 중심·놀이 중심으로 보육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선생님의 끊임없는 노력과 마음의 울림이 계속되길 바라며, 아이들의 놀이가 흥미롭고 다음이 기대하는, 이제부터 진짜 놀이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은미 컨설턴트

놀이중심, 영유아중심 보육과정으로 개정된 제4차 표준보육과정과 2019개정 누리과정은 만들어가는 보육과정 이며 모든 어린이집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는 보육과정이다. 그러므로, 어린이집 내에서 교사학습 공동체의 운영을 통하여 놀이 중심 보육과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과정이 진행되었다. **총 4차시 컨설팅이 진행되는 동안 미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과제를 주었고, 교육 시작 전 사전 과제를 발표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차시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시는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놀이 환경구성」을 주제로 하여 3차표준보육과정 및 평가인증체제에서 강조하였던 구조적인 놀이 환경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통해 새로운 놀이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전략을 살펴보았다.

2차시는 「놀이중심 보육과정을 실행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영유아들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서 강조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3차시는 「놀이의 의미를 부여하는 놀이 관찰 및 기록」이라는 주제 아래 각 교사들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놀이의 흐름을 소개하고 놀이를 통해 영유아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 지, 교사의 지원은 영유아 들의 놀이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 지 등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사들이 자신의 교실을 공개 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흥미로운 놀이 사례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감과 소통의 시간이 이루어졌다.

4차시는 「교사학습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놀이중심 보육과정」이라는 주제로 교사학습공동체가 잘 운영되려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협의의 시간을 가졌다.

"놀이ing를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 만들어가기" 컨설팅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의미있는 점은 교사들이 놀이 중심 보육과정을 실행하는 동안 각자의 고민들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고 모두가 공통된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하면서 교사학습공동체가 잘 이루어지도록 어린이집과 교사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어린이집 각 현장에서 교사학습 공동체가 잘 이루어져서 놀이 중심 보육과정이 교실을 활기차게 만드는 끊임없는 도전이 되길 기대해본다.

컨설턴트 참여후기

2021년 놀이학습공동체는 선생님의 관찰(관심)로 모두 다 안다

전혜경 컨설턴트

2021년 놀이학습공동체는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어떻게 Mentoring 할까? 하고 고민과 함께 두 번째 놀이학습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으로 '1차 컨설팅, 2차 컨설팅, 학습공동체, 3차 컨설팅, 발표할 추천어린이집, 질의응답으로 시작됩니다.'라는 말에 다들 어리둥절 하는 모습으로 '뭐가 이리 해야 하고 배우는 것이 많지?' 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내용을 먼저 듣고 시작하기로 했다.

내가 생각하는 놀이란? 교사들이 어릴 적 했던 놀이를 공유했다.

지금 현재 각자 반에서 어떤 놀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랬더니 다양 한 의견이 모아졌다. 먼저 놀이지원자로 놀이 환경, 주제선정, 놀이 시 상호작용, 문서에 대한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알고 싶다고 했다. 각자의 반에 놀이를 관찰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가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육환경은 전반적으로 가을과 교통기관에 대한 이야기들 공유하며, 같은 주제의 놀이를 서로 이야기한다. 다른 어린이집의 놀이상황을 듣는다. 이것만으로도 보육환경이 큰 편차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 시점이다. 그럼 환경은 비슷한 곳에서 놀이 진행 상황은 어떠한지를 물었다. 그랬더니 상황은 다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아이들의 사전경험과 교사의 상호작용, 교사의 놀이상황의 관찰(관심)이 다른 놀이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

주제는 가을이지만 가을 안에서 팽이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과 딱지에 관심을 아이들 곤충 색종이 접기, 물감으로 가을 색을 표현하고, 천사점토에 가을을 물들이는 아이들을 보았다. 정말 놀이는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보았다.

선생님들의 최대 고민인 교사가 아이들에게 어떤 발문을 해야 하는지였다.

그래서 상호작용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만 어렵다고 한다. 그럼 아이들 말과 행동을 따라하는 앵무새이야기를 한다. 그랬더니 잊지 않고 따라쟁이들이 된 선생님을 보게 되었다. 특히 영아는 쳐다보고 있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흥미이고 놀이의 시작이라고 했더니 쳐다 보고 있는 장난감을 보면서 자연스러운 교사–아동과의 상호작용이 시작된다. 여기서 중점은 자유스러운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다.

유아는 아이들의 놀이상황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해야 놀이의 지원자가 되는지? 놀이의 참여자가 되는지? 놀이의 진행을 알 수 있기에 관찰(관심)을 많이 듬뿍 주기를 알려드렸고 그렇게 진행되는 교사들을 보았다.

아이들이 먼저 다가오는 선생님의 놀이의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그렇지만 교사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이때는 교사가 그 아이를 좀 더 관찰하고 지원해줘야 하는 게 힘들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이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이의 눈빛, 말투 하나, 행동을 놓치지 않아야 진정한 놀이를 이해 할 수 가 있다.'라고 했더니 2차, 3차로 진행한 아이의 놀이에 선생님께서 수월하게 아이들 놀이를 참여하고 있었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일과 운영 및 보육일지, 관찰일지는 생각의 방향을 전환해서 제4차 표준보육, 누리과정의 인간상을 비교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놀이와 일상에서도 인간상을 찾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놀이의 변화를 위해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저 또한 현장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정시현, 김선영, 정해경, 이은비, 조소영, 박진숙 그리고 든든하게 지원해주시는 원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보육의 미래가 환하게 열림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해주신 경기도북부 육아종합지원센터에게도 정말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놀이학습공동체는 선생님의 관찰(관심)로 모두 다 안다는 놀이의 활성화를 위해 계속 이어져서 즐거운 놀이 통해 배움공동체와 함께 놀이하는 사회를 알아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놀이학습공동체도 즐겁게 마무리 짓습니다. 놀이에 고민하는 교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육교직원 참여후기

| 상패어린이집 교사 |

처음엔 원을 대표하여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었다. 하지만 그냥 평소 하던대로 마음을 편하게 갖고 임하면 된다는 이야기에 조금은 마음 편하게 임했다.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잘 따라오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지만 원에서 선생님들과 원장님께서도 많은 격려와 응원으로 도와주셔서 너무 잘 마무리 하였다.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영상을 찍고 아이들과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하였는지 반복적으로 영상을 시청하다보니 교사로서 부족한 점을 알 수 있게 되었고 그 점에 대해 교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시정할 수 있는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컨설팅에 제일 큰 도움을 주신 담당 교수님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교사에게 보여주신 마음과 열정은 교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음을 꼭 전달해 드리고 싶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참여하여 더 발전 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 연천어린이집 교사 |

2019 개정 누리과정 속 '놀이 중심'에 한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사의 중심이 아닌 유아들이 중심으로써 유아들의 자율성을 더욱 존중하게 되었으며, 이미 유아들과 지나쳐간 시간들의 아쉬움을 대신하여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교사로서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익숙하다 못해 무료하게 흘러가던 교사 생활에 다시 한 번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되새길 수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 남이섬어린이집 원장 |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과연 그 과정을 초임 교사 두 분이 어떻게 풀어나갈까? 라는 고민 가운데 시작된 우리 아이들과의 일상.

조금 마음의 속도를 늦추고 기다리며, 놀이 컨설팅과 매일의 과정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아이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다 보니, 어느새 놀이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육교직원 참여후기

| 남이섬어린이집 교사 |

놀이학습공동체 컨설팅을 하기 전과 하고난 후 큰 변화가 생겼으며 교사와 영유아들도 '놀이'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컨설팅 전에는 항상 반복되는 놀이들로 영유아들이 놀이하는 것이 단순하게 느껴졌다면 현재는 같은 놀잇감을 가지고 놀이하더라도 교사의 관찰과 놀이지원으로 다양한 생각들을 통해 놀이 확장이 되며 그 안에서 영유아들이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며 점차 성장해가는 모습들도 볼 수 있게 되었다. 아직은 서툴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영유아들과 교사들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컨설팅이었다.

| 남이섬어린이집 교사 |

처음에는 놀이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고민에 빠져있었습니다. 어떻게 놀이지원을 해야 되는지 방법과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궁금하던 순간 놀이지원 컨설팅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획부터 환경구성, 상호작용까지 너무 자세하게 컨설팅해주시고 피드백을 해주셔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환경구성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구성하되 안전하게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작품을 전시하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듣고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초임이다보니 아이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 전부 해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는 아이들에게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환경구성을 바꾸었습니다.

상호작용은 "안돼"라는 말보다는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먼저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너무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 이러한 교사의 마음가짐으로 교사생활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 건영 어린이집 교사 |

놀이학습공동체 교육 및 컨설팅에 참여하면서 놀이의 시작점을 찾기 위해 영유아를 세심하게 관찰하게 되었다. 아이들마다 놀이의 시작점이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영유아의 개별적인 성향도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실로 유의미한 경험이었다. 놀이의 흐름에 따라 교육적 지원을 해보니 아이들의 놀이가 끊기지 않고 계속 된다는 점이 인상깊었으나 유아의 흥미가 끊기지 않도록 즉시 자료 및 재료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앞으로는 그간 진행되었던 놀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 있을 놀이를 미리 예측하면서 보다 활발한 놀이확장을 위해 지원하고자 한다.

| 한석봉어린이집 원장 |

놀이학습공동체 보육과정 컨설팅을 통해 신입교사로서 현장에 적응하며 유아들과 일과를 보내는 일이 정말 어렵고 아이들에게는 더 없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올바른 보육과정을 이해하며 유아중심, 놀이 중심에 대해 많이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사의 사전준비, 상호작용, 관찰, 적절한 피드백...등 여러 가지 현장에서 교사로서의 역할과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 그리고 교사 주도가 아니라 유아 주도의 활동과 놀이에 대해 많이 배우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놀이학습공동체 보육과정컨설팅은 어린이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며 컨설팅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컨설턴트의 현장에 대한 교사 피드백과 교사로서 유아들에게 필요한 상호작용, 놀이 이해, 관찰, 참여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도움을 주셔서 선생님도 성장하고 유아들도 더 많이 적극적으로 활발한 놀이가 진행되고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현장에서의 적절한 평가나 피드백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놀이학습공동체 전문적인 컨설팅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추구하는 운영방식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나 원마다의 포인트가 있어야 더 즐겁고 부모도 아이들도 교사도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원장으로서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컨설턴트의 포근한 마음과 따뜻함까지 느낄 수 있어서 한걸음 더 원장으로서 성장 할 수 있다는 용기도 얻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시립토평마을어린이집 교사 |

영아들이 주도적으로 놀이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았고 영아들에 적절한 놀이지도 방법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시립인창어린이집 교사 |

어떤 방법으로 놀이지원을 하여야 할까 고민이 많았는데 놀이학습공동체로 인해 유아들에게 효과적인 놀이를 지원할수 있는 교육을 받고 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며 놀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놀이학습공동체가 운영되었음 합니다.

보육교직원 참여후기

| 예닮어린이집 교사 |

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주제 없이 놀이만을 통해 그 속에서 올바른 배움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놀잇감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이를 하면서 그 속에서 주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 주제가 정해져있지 않더라도 놀이 속에서 주제가 생기고, 배움이 생기며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놀이 컨설팅을 통해 교사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개방적인 자세와 긍정적인 마음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어 감사하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성장해나갈 아이들과 저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 시립갈매행복어린이집 교사 |

처음 진행하는 놀이 중심이 낯설고 어려워 막막하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위로가 많이 됐습니다.

최근 저희 반은 그림 위에 투명한 종이를 대고 따라 그리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따라 그리기에 이어 글씨 따라 써보기를 해보고 익숙해지면 보고 그리기와 보고 쓰기에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해주셔서 현재 몇몇 친구들은 동화책을 보고 따라 그리기나 보고 따라 쓰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마루어린이집 교사 |

놀이학습공동체에 참여하면서 놀이에 대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 안델센어린이집 교사 |

아이들의 놀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만 배움공동체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변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시립어반포레어린이집 교사 |

놀이학습공동체를 통해 놀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으며 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른 원들의 놀이에 대해서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이를 통해 좀 더 다양한 놀이교육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 대방시그니처어린이집 교사 |

'놀이학습공동체' 표준보육과정 컨설팅을 통해 교사 주도로 이루어졌던 가짜 놀이를 영아 주도로 이루어지는 진짜 놀이를 존중하고 지원해주는 교사의 역할을 알 수 있었다. 교수님과의 피드백 시간을 통해 내가 놀이 상황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해야 슬기롭고 지혜롭게 놀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놀이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한층 세심해짐을 느꼈다. 교사가 계획하여 영아가 놀이를 경험하는 것 보다, 영아가 자발적으로 시작하는 놀이를 통해 영아가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쌓으며 성장한다는 것을 느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나',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과 나', '친구들과 나'와 같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영아의 놀이 시야를 넓히고, 넓어지는 시야를 놓치지 않고 교사가 세심하게 알아차려서 놀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 만 1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의 담임교사가 되었을 때에도 컨설팅의 피드백과 내가 적용한 사례들을 떠올리며 적용해야겠다.

| 행복하나어린이집 교사 |

영아중심 놀이 중심을 중점으로 영아들의 놀이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교사의 개입이 들어가지 않아 영아가 놀이를 시작하는데 다소 어려움을 느꼈다. 영아들의 놀이확장에 따라 교사가 놀이의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고 영아가 주도적으로 놀이 할 수 있도록 도입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으나 잘잘놀이 컨설팅을 받으며 교사의 적절한 개입과 영아중심으로 놀이하는 과정을 관찰하며 영아들의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과정에 즉흥적으로 놀이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교사는 놀이를 이끌어가려는 것을 멈추고 보육실 전체 영아들의 놀이 상황과 놀이의 흐름, 개별 영아의 관심과 흥미를 관찰해 보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다.

보육교직원 참여후기

| 덕정따복어린이집 교사 |

컨설팅을 통해 교수님이 주신 피드백과 컨설팅 후 동료교사와 함께 나눴던 의견들을 하나하나 수렴하면서 놀이에는 다양함이 있고 또 생각이 있으며 영아들의 자유로운 놀이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다. 또한 영아들과 함께 하는 일상을 영상을 통해 영아들에게 상호작용하는 내 모습과 동료교사의 모습을 면밀히 볼 수 있었으며 아이들의 교실에서의 놀이방법이나 나의 보육방식을 알아보는데 의미있는 시간이 된 것 같다.

영아들에게 문제해결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놀이방식을 안내해주어 교사에게 의존적인 성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됨을 피드백을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영아들이 지속적인 놀이를 하기 위해서는 영아들의 개별적 특성과 흥미를 참고하여 영아가 흥미있는 영역에서 놀이할 때의 교사는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을 해주어 영아의 놀이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번 잘잘놀이를 통해 보육하는 모습을 피드백해 주셔서 보육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교육이 끝이 아닌 놀이에 대한 경험 있는 피드백과 주변에서 함께 나눠준 피드백을 바탕으로 영아들과 즐거운 놀이, 행복한 놀이, 안전한 놀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또 영아들이 주도할 수 있는 놀이가 되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낌없이 주는 교사가 되리라 생각해 보았다.

| 공립가람어린이집 교사 |

유아들의 진짜 놀이를 발견하고 유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원하고 확장해 나가며 유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로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교육을 통해 교사가 유아들의 놀이에 귀 기울이고 관찰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아직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진짜 놀이 찾고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궁금했던 것에 대해 서로 의견을 듣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

| 리첼아이어린이집 교사 |

놀이학습공동체 컨설팅이 마무리되었지만 아직도 원장님께서 “놀이학습공동체”를 제안하셨던 그날이 생생합니다. 잘잘 놀이 컨설팅이 누군가에게 나의 모습을 보이고 평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 걱정이 먼저 앞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컨설팅을 받으면서 알아가는 설렘과 놀이의 진정한 즐거움을 영아들과 함께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면으로 컨설팅은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그 속에서도 “놀이학습공동체”컨설팅은 이어져 갔고 영상을 찍어야 하는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오히려 영상을 찍은 후 나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모습을 또한 교수님께 컨설팅을 받으면서 객관적으로 나의 모습을 평가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아들이 과연 주도적으로 놀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도 하였지만 컨설팅을 받으며 놀이를 하다 보니 영아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놀이 또한 컨설팅 전부터 영아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던 놀이였는데 컨설팅을 받으며 놀이를 진행하다 보니 영아들의 놀이가 오랜기간동안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계획은 교사가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놀이는 영아들이 주도 한다며 그 또한 영아 중심이였고 놀이 중심이었습니다. 교사는 영아의 모습을 관찰하며 더욱 민감하게 반응해야 했으며 관찰한 것을 놀이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면 영아들은 더욱 더 놀이에 집중하고 다양하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면서 제4차 표준보육과정[영유아 중심·놀이 중심]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교사-영아의 상호작용법을 배우면서 현장에 적용을 하여 영아들과 교사의 관계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으며 교사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었던 뜻깊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배움의 바탕으로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영아 놀이 중심의 즐거움을 느껴보겠습니다. 우리 사과반(만2세)에서 영아들이 “선생님 오늘 진짜 재미있었어요”, “또 놀아요”라는 말이 늘 나올 수 있는 반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많은 도움을 주신 민혜자 교수님 그리고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학습공동체” 컨설팅 담당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육교직원 참여후기

| 공립대방빛가람어린이집 교사 |

어린이집에서의 일지 작성법과 전반적인 어린이집 학급 운영,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궁금점을 해소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놀이의 재발견 컨설팅을 계기로 좀 더 유아들의 눈높이에 맞게, 유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놀면서 배운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교직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공립은행어린이집 교사 |

놀이학습공동체를 통해서 다른 어린이집에서는 어떻게 놀이가 이루어지고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하며, 놀이를 어떤 식으로 확장해주고 지원을 해주는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놀이의 흐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놀이 재발견 컨설팅을 통해 유아들이 놀이를 할 때 좀 더 관심을 갖고 놀이하는 모습을 충분히 관찰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었고, 아이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함께 놀이하면서 놀이를 통한 배움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 승진어린이집 교사 |

교사가 유아들의 놀이에 적절하게 개입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컨설팅을 통하여 유아들의 놀이에 적절하게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알 수 있었고 놀이가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지원을 해야 함을 느낄 수 었습니다.

| 아이파크어린이집 교사 |

영아들의 놀이를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알게 되고 적절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놀이가 더욱 확장되는 것에 대에 뿌듯함을 느꼈고 세심한 관찰과 놀이 지원을 하여 놀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예그린어린이집 교사 |

교사가 개입하여 놀이에 대한 소개를 하고 놀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델링을 보여주거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는데 교사의 개입 없이도 유아들이 자연스럽게 놀이를 주도하고 놀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MEMO

기획 및 집필

정혜원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홍유림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지원팀장)

참여육아종합지원센터

가평군육아종합지원센터

고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

포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정보육과정에 기초한 놀이교육지원 사례집

놀이로 함께 배움

영유아들의 놀이 속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싶은 교사의 바람

발 행 처 경기도북부육아종합지원센터

발 행 일 2021년 12월

전 화 031. 876. 5767

주 소 (11780)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 3층

발 행 인 정혜원

디 자 인 디자인팩토리